RURAL CHURCH LITURGY IN POSTCOLONIAL PERSPECTIVES: A GROUND THEORY APPROACH TO THANKSGIVING SUNDAY WORSHIP IN KUCHI CHURCH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Seonpil Hwang

May 2020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Seonpil Hwang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Haejung Park,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RURAL CHURCH LITURGY IN POSTCOLONIAL PERSPECTIVES:

A GROUND THEORY APPROACH TO THANKSGIVING SUNDAY WORSHIP

IN KUCHI CHURCH

by

Seonpil Hwang

This study has begun from seven years of my ministry at a small rural church on an island, and from a realization that the life rhythm of our church members does not match the seasons in the Christian calendar. This was merely my personal struggle but later was turned into a curiosity — how do they feel about the Christians seasons that are seemingly off their normal life patterns? This project focuses on Thanksgiving Sunday and analyzes my parishioners' Thanksgiving Sunday worship experiences using in-depth interview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our church members and analyzed the data collected. I will discuss the result of my qualitative research from post-colonial and enculturation/indigenization perspectives. Finally, I will also suggest, from a practical viewpoint, a way to celebrate Thanksgiving Sunday relevant to the rural Korean church context. It has been my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ministers working in mostly rural areas and struggling with the suitability of the church calendar like myself with a new tool to minister to their flock.

KEYWORDS: Thanksgiving Sunday Worship, Post-colonialism, Inculturation/Indigenization, Qualitative Research, A Ground Theory

국문 초록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농어촌교회 예전:

구치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by

Seonpil Hwang

본 연구는 내가 도서교회에서 7 년간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삶의 리듬, 섬의 생활과 계절이 교회력 상의 절기와 맞지 않는다는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가졌던 개인적 갈등은 이내 목회적 궁금증으로 발전하였다. 삶의 리듬과 맞지 않는 교회력 상의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도서교회 교인들은 어떤 예배 경험을 갖는가? 본 프로젝트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교인들의 예배 경험을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치교회 교인들의 예배 경험은 어떠한 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질적 연구 결과를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문화화/토착화 신학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관점에서 교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농어촌 교회의 시간과 상황 및 조건에 어울리는 추수감사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목회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교회력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농어촌이라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추수감사절, 포스트콜로니얼, 문화화/토착화, 질적연구, 근거이론

SUMMARY

The Christian Church has at least four different calendars: church calendar, secular (cultural) calendar, denominational calendar, and local church calendar. Thanksgiving is rather closer to the secular (cultural) calendar than to the church calendar (Advent - Christmas - Epiphany - Lent - Easter - Pentecost). The Korean Church has a tendency to confuse the church calendar with the secular calendar, and to indiscriminately accept the church calendar originated from the Western Christianity.

The current project has stemmed from my rural church ministry experiences, which brought to my attention that the seasons of the church calendar, especially Thanksgiving, do not match our church members' life patterns.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 came to realize that they found no problems in it and felt no empathy with my struggle. The lack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pastor-centered ministry patterns caused blindness and deafness in them. They would rather rely on the pastor than independently think through matters in the life of the church.

This project will reveal the reality that the members could not agree with such internal struggle of myself; study possible underlying reasons; and suggest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 way to celebrate Thanksgiving Sunday that is relevant to the rural Korean church context.

I will incorporate postcolonial perspectives in this study to analyze my ministerial context and utilize enculturation and indigenization theories to suggest a possible Thanksgiving Sunday model. I have come to think that listening to the members' in the pastor-centered Korean church context itself is a beginning of the process of healing. It is my sincere hope that transformational

stories like this shall continue where pastors and members come together in rural church context to imagine a better way to observe Thanksgiving and to suggest a new model.

국문요약

교회는 최소한 네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력 – 문화달력 – 교단달력 - 지역교회달력’이다. 추수감사절은 교회력(대강절 – 성탄절 – 주현절 – 사순절 – 부활절 - 성령강림절)이라기 보다는 문화달력에 가깝다. 한국 교회는 교회력과 문화달력을 혼동하거나, 서구의 교회력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도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의 절기와 교회력,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이 구치교회 교인들의 삶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내 개인적 갈등에서 시작되었고, 질적연구의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 교우들은 나의 갈등에 공감하지 못했다. 예배 교육의 부재와 오랜 시간 지속된 목회자 중심적 목회로 인하여 교우들은 목회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보다 교회 생활 전반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목회자 개인의 목회적/신학적 갈등(conflict)을 교우들이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그 기저 이유를 연구 분석하여 실천적인 관점에서 ‘한국 농어촌 교회의 시간과 상황 및 조건에 어울리는 추수감사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나의 목회 현장을 조명하고, 토착화와 문화화 이론을 가지고 한국 농어촌 교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 예배모델을 제시하였다. 예배, 행정, 목회의 모든 분야가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교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이미 치유(healing)의 시작이며, 처음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머리를 맞대어 도서교회의 시간과 조건에 어울리는 추수감사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변화(transformation)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추수감사절의 시기가 도서교회에 적합한가?

나는 섬에서 7 년째 목회하고 있다. 교인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다. 서울 태생으로 시작한 첫 시골 사역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갈등은 나의 생활 패턴과 리듬이 교회가 지켜오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늦은 밤, 혹은 새벽이 되어야 잠을 자는 나는 새벽 3 시 40 분만 되면 교회에 찾아와 종을 치는 교인들과 4 시에 새벽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섬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거의 해결되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 찾아오는 또 다른 갈등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고민은 교인들의 삶의 리듬과 계절이, 교회력 상의 절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족의 큰 명절인 구정(설)을 지내면서는 사순절로 인하여 금식을 해야 하는 때도 있고, 교회 절기의 가장 큰 부활절은 모내기와 바지락의 종패를 넣는 작업으로 예배 시간을 이리 저리 옮기다가 엉뚱한 때, 애매한 시간에 드리는 해도 있었다.[1] 추수감사절은 농한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나서 드려야 했고,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교회력을 시작해야 할 대강절, 성탄절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당회며, 구역회로 분주하게 보내야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어촌교회, 현재 내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도처에 있는 예전 중심의 교회들과 비예전 중심의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교회력의 괴리로 갈등하던 목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회력과 교회가 정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 중, 농어촌교회의 상황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추수감사절의 위치를 농어촌교회의 시간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B. 논지와 토론

기독교대한감리회(Korean Methodist Church, 이하 KMC)는 1930 년 초대 총회에서 갈라져 있던 미국의 남/북 감리교회의 통합을 이뤄냈다. 한국에서 이뤄진 미국 남/북 감리교회의 통합은 인종차별에 대한 견해차이로 대립하던 두 개의 감리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당시 조선인

---

[1] 바지락: Tapes(Amygdala Philippinarum) (ADAMS et REEVE), 조개(clam)의 한 종류.
종패: 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조개, 조개의 새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 감리교인들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신학 이해와 독립된 신학/교회 형성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학적 이해와 독립된 신학 없이 수용한 잘못된 신앙의 유산이 있다. 그중 하나가 교회력이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와 그 절기를 지내는 관습들은 서구 교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단지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그 메세지를 담는 그릇이 함께 유입되었을 뿐, 이러한 것들은 본질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자신들이 섬기는 농어촌 교회의 시간 및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구성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및 농어촌 교회의 시간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오서는 교회행정과 목회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전통적인 교회력'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별 절기와 기념 주일에 적합한 '토착적인 교회력'을 설정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2]라고 언급했으나, 토착적인 교회력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신앙공동체가 만족할 만한 실제적인 대안들을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토착적인 교회력 재구성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회 전통에서 물려받은 교회력이든,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된 교회력이든, 그것은 우선적으로 축제적인 예배 표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틀을 융통성 없이 고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되풀이해도 의미가 없다[3]

목회를 하면서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리고 절기와 설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다. 아담 해밀턴(Michael Adam Hamilton)도 "해마다 설교를 계획할 때 특별히 신중을 기울이는 절기와 달이 있다"[4]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강림절과 성탄절, 부활절을 창조적이고 신선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고 주장한다.

---

[2] 권오서, *교회 행정과 목회* (서울: KMC, 2012), 275-76.

[3] 박근원, *교회력과 목회기획* (서울: 쿰란출판사, 2003), 17-18.

[4] Adam Hamilton, *Unleashing the Word 말씀을 해방시켜라*, trans. 유성준 (서울: KMC, 2009), 164.

[5] Hamilton, 164.

그럼에도 왜 정작 절기와 설교의 핵심적 요소인 교회력과의 괴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 거대화된 교회력에 대한 담론과 서구 제국주의로 인하여 그 틀 안에 갇혔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논의를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를 지배하고, 재조직화하며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조장하는 서양의 사유양식이다.[6] 미국 대형교회의 예배를 여과없이 모방하거나, 목회자들이 시간을 정해 유명한 미국 설교가들의 설교를 번역하여 연구하는 모임들을 볼 때, 현재 한국교회가 이 거대한 오리엔탈리즘에 예속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교회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판단없이 그저 이 거대 담론을 수용한 것이다. 교회력이 서구의 산물이니 무조건 지켜야 하며, 이것이 우월하다고 보는 목회자도 있다. 또한 제국주의는 오리엔탈리즘을 거부하고, 분열시키려 했다. 에드워드 혼(Edward Horn)이 지적한 것 처럼 "교회는 교회력을 폐기하거나 재구성 하려고 시도할 때 늘 그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 왔다."[7]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를 쓴 남호의 설명에 따르면… "20 세기에 들어와 교회력의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교회는 교회력에 관한 책들을 발간하였다. 개신교회가 교회력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통일을 보고 공동 교회력을 만들었으며 그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성서일과를 만들었다."[8] 또한 목회자의 교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한 몫을 더했다:

> 이러한 교회력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순하게 기념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보다 더 상세하게 체계를 갖추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드리려는 아름다운 예배의 정신을 담고 있다. 환언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배의 내용을 심어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려는 데 그 깊은 뜻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력을 따라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에 따라 말씀을 유효 적절하게 공급해야 하는 일은 지혜 있는 청지기의 사명이다.[9]

이렇듯 교회력을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서구 교회들의 노력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교회력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목회의 도구'로만 생각하거나,

---

[6]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3), 52.
[7] Edward T. Horn, *The Christian Year 교회력,* trans. 배한국 (서울: 콘콜디아, 1994), 37.
[8] 남호,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서울: KMC, 2010), 47.
[9]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310.

절기를 어떻게 이전과 색다르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 할 뿐, 절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또한 교회력을 등한시 하는 성도들도 있다:

> 최근에 나는 이런 예배 전통에 속해 있던 한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인한 그 목회자는 교인들을 올바로 안내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찬송하나, 기도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 분의 기나긴 설교입니다. 제가 교회력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면 그들은 제가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려는 줄 압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라고 충고합니다. 교회력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구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10]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와 같이 소수이지만 기존 교회력을 한국의 전통과 상황들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11]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교회 문화, 국경일(현충일, 한글날,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등) 그리고 명절(추석, 설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들은 현재 교회력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토착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농어촌실정에 맞는 추수감사절의 위치(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최소한 네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력–세상(문화)달력–교단 달력–지역교회 달력'이다. 추수감사절은 교회력(대강절 – 성탄절 – 주현절 – 사순절 – 부활절 –성령강림절)이라기 보다는 세상(문화)달력(추석, 혹은 기념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화 달력은 문화적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

---

[10] Robert E. Webber, *As Ancient-future Time: Forming Spirituality though the Christian Year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trans. 이승진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31.

[11]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8). 경동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1974 년 9 월 29 일 추석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파생한 그들만의 고유한 절기다. 감사의 정신과 추수의 시기를 고려하면 추석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한국 교회에 권장할 만한 시도다. 그리고 경동교회에서는 사물놀이, 무용, 연극 등을 절기에 맞춰 준비해 공연으로 보여주는데, 이 때도 한국적인 소재와 색깔을 드러내고자 고심한다. 1995 년 12 월 3 일에는 한국 기독교 문화 토착화 작업의 하나로 새로운 예배복을 입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 성가대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헌금위원이 포함되었다. 예배를 인도하는 채수일 목사가 입는 예복은 한국 전통 예복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다. 스톨에도 전통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한국 교회는 교회력과 양력(흔히 사용하는 태양력을 따르는 달력)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구의 교회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식민화 상태 혹은 재식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12] 로버트 영(Robert J. C. Young)에 의하면 탈식민주의란 "서양의 가장 위대한 신화, 즉 대문자 역사(History)[13]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전개하는 것"[14]이다. 로버트 영은 특히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문화와 현상들을 비판하면서, 탈식민주의가 학문의 영역을 넘어 모든 역동적인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변화(transformation)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양식(forms)이라고 평가한다.[15] 무어 길버트(Bart Moore-Gilbert)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탈식민주의의 최종적 목표를 "speak the truth to both"[16]로 제시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가난한 자, 나그네와 주인, 지배자와 피지배자, 식민지와 피식민지가 모두에게, 또는 서로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학적인 정의를 마친 후, 한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국 농어촌 교회의 시간과 상황 및 조건에 어울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는 농어촌교회에 적합하다고 제시한 추수감사절에 함께 절기를 지킨 후, 교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사례 이전(before)과 사례 이후(after)의 면담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 과정은 양적연구가 아니라 질적연구에 해당한다. 연구를 위해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추수감사절을 고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자 관점'을 사용하였다. 태혜숙이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가 외부자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

[12] Homi K. Bhabha and Jonathan Rutherford, *The Third Space – Interview with Homi Bhabha*,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 Jonathan Rutherford, 207–221, quoted in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October 2015): 34–35.

[13] Robert J. C. Young, *White Mythologies 백색신화*, trans. 김용규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22, quoted in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22.

[14] 이성애, 11.

[15] Robert J. C. Young,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Oxford, UK: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2001), 5–11.

[16] Bart Moore-Gilbert,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 (London: Verso Books, 1997), 116.

사람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에 응답하는 실천을 발전시키게 된다."[17] 이와 같이 내가 다른 문화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전통적 교회력에 대한 탈식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연구를 확대하여 주변교회와 함께 재구성된 날짜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농어촌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킨 추수감사절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태혜숙은 이렇게 제국주의적 세계관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 비폭력이라고 불릴 역사들을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해방적 차이(emancipatory difference)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긍적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차이로 인해 주어진 가치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19]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 또한 기존의 교회력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에 대한 이해, 달력의 종류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연구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에게 각자의 시간과 상황에 어울리는 예배를 제안하는데 공헌 될 것이다.

C. 청중

본 연구의 1 차적인 청중은 연구자 나 자신이다. 전통적인 교회력과 농어촌교회의 목회에 큰 괴리가 있음을 오래전에 인식하고 갈등하던 나에게 이 연구는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차적인 청중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구치교회(이하 K 교회) 교인들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변에서 비슷한 환경 속에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들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비슷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와 도시에 위치했으나, 11 월 셋째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예배가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토착화된 추석감사예배 혹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추수감사예배를 고민하는 교회들이다.

D. 연구의 범위와 제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목회하는 K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과 절기 중 추수감사절에 집중하여 연구하면서 가장 농어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을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해

---

[17]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83-84.

[18]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서울, 문화과학사, 2004), 118.

[19]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63-64.

추석감사예배와 추수감사절예배를 드리고 10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심층면담 하였다. 더 나아가 도출된 결과를 주변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교회에도 이 연구를 알리고, 재구성된 추수감사절을 소개하여 함께 목회를 진행하며, 개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본 연구는 농어촌교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력이 제시하는 추수감사절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특히 교인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교회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성을 지닌다.

E. 독창성과 공헌

이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하여 교회력과 성서일과, 이를 적용하여 드리는 예배를 소개하는 연구와 자료들은 많이 있다. 박근원이 1979 년에 쓴 *교회력과 그 토착화의 가능성*에서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유대교의 축제력과 로마제국의 세습력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20] 또한 종교개혁을 지나, 에큐메니칼운동을 통해 교회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채택 규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박근원은 특히 한국의 경우 교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교회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박근원이 연구한 1979 년은 한국 전체인구의 1/3 이 농사에 관련하던 때이다. 40 년 전에 씌여진 글이기에 현재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고, 국경일과 교회력을 지나치게 연결하려 한다. 한국교회의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현재의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고찰하고, 교회력과 세상 달력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새 의미를 찾기에는 부적합하다.

정장복은 1994 년에 쓴 *교회력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고찰*에서 교회력의 형태와 내용을 역사적 서술방법으로 기술한다.[21] 구약과 신약,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개혁가들이 주장한 교회력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 구약적 배경에서는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과 장막절이 갖는 참 의미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이어 신약에 나타난 교회력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유월절의 연속으로 행해진 주님의 만찬과 부활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한 안식일과 주일, 교회의 생일이

---

[20] 박근원, "교회력과 그 토착화의 가능성," *기독교사상* vol. 225, no. 9 (September 1979): 45–57.

[21] 정장복, "교회력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vol. 10, no. 12 (December 1994): 509–34.

되는 오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지킨 주일과 중세교회의 교회력의 발전과정, 개혁가들이 주장한 교회력의 형태와 교회력의 현재적 형태와 그 내용,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2016 년까지 한국에 소개된 거의 유일한 교회력에 관한 책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한국의 교회적 상황에 어떻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02 년 조성태가 쓴 *교회력에서 부활절기의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적으로 토착화하지 못한 추수감사주일 부활절에 대해 고찰한다.[22] 또한 사순절 기간 안에 지켜지는 설날에 대해, 한국 전통의 절기인 한식[23]과 관련하여 부활절을 한국적 전통에서 다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정확하게 교회력의 부적합성에 대하여 설명했으나 주체적인 노력이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논문을 통해 나는 프로젝트에서 절기의 토착화되지 못하였음을 인지 및 성찰하고, 토착화된 절기의 위치를 목회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명실은 2015 년에 쓴 *추수감사주일, 꼭 11 월 셋째 주일이어야 하나*에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전통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며,[24]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절기들을 건강하게 토착화시킨 몇 나라들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보다 한국적인 추수감사예배를 위한 날짜 선정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것이 진정 교회력의 회복과 한국적 선교를 이루는 길임을 주장한다. 이 글은 한국적 교회력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글의 분량이 짧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

박해정은 2016 년에 쓴 *빛을 따라 생명으로*에서 절기예배와 현대예배의 공존 가능성을 탐색하며,[25] 에큐메니칼적 예배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강림절기부터 시작하여 성령강림 절기까지의 순서로 그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발전과정을 잘 기록했다. 하지만 강림절, 주현절, 사순절, 성령강림절로 이어지는 큰 절기들을 설명하며,

---

[22] 조성태, "교회력에서 부활절기의 위치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2) 참조.

[23] 냉절, 冷節, 전통 4 대 명절의 하나. 동지에서 105 일째 되는 날이며, 4 월 5 일이나 6 일이다. 특히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이 절기 제사를 지내며,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하는 시기이다.

[24] 김명실, "추수감사주일, 꼭 11 월 셋째주일이어야 하나요?" *한국기독교공보,* last modified September 15, 2015,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6895280668&page=127.

[25]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서울: 동연, 2016) 참조.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추수감사절이 교회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책 중의 하나이다.

위와 같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교회력의 적합성을 고민하며, 새롭게 추수감사절을 구성하는 연구는 본 프로젝트가 최초이다. 또한 재구성된 추수감사절에 실제로 절기를 지키며, 연구/분석하는 유일한 프로젝트이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K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추수감사절 날짜를 확정했다는 것보다 교회의 상황을 질적연구를 통해서 알고, 목회자가 회중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함께 추수감사절예배를 만들었다는 독창성이 있다. 이를 통해 추수감사절의 위치와 교회력의 적합성에 갈등과 고민을 가지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농어촌이라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 논지의 흐름

1 장, '서론'에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핵심적인 갈등 즉,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할 의제를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디민 프로젝트가 예상하는 청중, 연구의 범위와 제한, 독창성과 공헌, 논지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였다.

2 장,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한 방법과 절차, 도출된 결과와 해석을 설명하였다.

3 장, '탈식민지주의와 문화화/토착화'에서는 탈식민주의와 문화화/토착화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4 장, '2 장에서 도출된 결과와 3 장에서 정리한 이론'에 근거하여 농어촌 실정에 맞는 추수감사절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하며 목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한국교회가 탈식민주의적이며 토착적인 추수감사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재론하고, 이 과정에서 탈식민주의가 어떤 가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도전에 대해 서술하였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참여자

나는 K 교회 교우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예배와 절기, 교회력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했다. 질적연구는 특정사례에 관심을 가진다. 양적 연구가 대단위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연구한다면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관심 갖는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연구관심을 둔다.[26] 또한 질적연구는 현장지향 연구방법이다.[27] 질적연구는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선행연구가 없는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생각 지각, 경험과 변화에 대해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거이론은 질적연구의 데이터를 분석/코딩하여 질적 데이터로부터 귀납적인 이론들을 개념화하는 과정이다. 근거(ground)라는 말의 의미는 이론의 근거 즉 자료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나는 이 연구를 위해 스트라우스(Strauss)와 코빈(Corbin)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29]

나는 질적 연구를 위해 추석을 앞둔 2019 년 9 월 8 일에 추석감사예배를 드렸으며, 12 월 1 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감사에 대한 두번의 예배를 드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이 민족의 대명절로 지키는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 agricultural audit day)이며 농사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한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며, 또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깊은 의미가 있다.[30] 도시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을지 모르지만, 농어촌에서의 추석은 농부와 어부들이 수고하여 땀으로 거둔 논과 밭, 바다의 작물들로 푸짐한 상을 차려 가족끼리 함께 나누는 풍습이 아직도 존재한다. 추석의 기원은

---

[2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127.

[27] 김영천, 132.

[2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46.

[29] 김문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no. 47 (May 2015): 9.

[30] 권오경, "한국 추석문화 교육방법 연구-한, 중 문화대조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1), 3.

고대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기 추석날에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는 풍습이 있었고, 가야에서는 한 해의 다섯번, 신라에서는 여섯 번씩 시조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8 월 추석의 제사였다.[31] 평생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추석이야 말로 추수감사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감사예배를 드렸다.

또한 12 월 1 일에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는 K 교회의 추석감사예배를 드린 교우들이 1 년 농업과 어업의 마무리를 무엇이라고 여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을 토대로 날짜를 정하였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김장을 농업과 어업의 마무리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 해의 농사 중 가장 늦게 수확하는 작물이 배추와 무였고, 김치에 들어가는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굴과 같은 해산물을 기초로 하는 양념도 이 때가 되어야 모든 수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김장을 한 후에 진정한 농한기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심층면담을 위해서 K 교회의 교우들 중 2019 년 9 월 8 일의 추석감사예배와 2019 년 12 월 1 일의 추수감사예배를 모두 드린 이들로 10 명을 선정하였다. 연령, 성별, 신앙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10 명의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32]

	성별	학력	신앙력
연구참여자 A	여	대학원 졸업	10 년
연구참여자 B	여	대학교 졸업	33 년
연구참여자 C	여	대학교 졸업	21 년
연구참여자 D	남	고등학교 졸업	3 년
연구참여자 E	남	고등학교 졸업	48 년
연구참여자 F	여	고등학교 졸업	7 년
연구참여자 G	여	중학교 졸업	27 년
연구참여자 H	여	중학교 졸업	51 년

[31] 허천재, “한국 전통문화에 따른 절기예배문 시론”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03), 60.

[32] 학교에 제출한 2 차 Draft 프로젝트까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을 기록했으나, 구술시험에서 주심/부심교수와 합의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연령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연구참여자 I	여	야학	14 년
연구참여자 J	여	K 교회 한글학교 이수(5 년)	36 년

20-70 대 사이의 연구참여자는 무학력, 야학, 초, 중, 고, 대졸등의 다양한 학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하였고, 성비, 연령, 신앙력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적합한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윤리성확보를 위하여 심층 면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의 가명을 사용하고, 연구 참여 전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 2 차례에 결쳐 약 30 분 동안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건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연구 동의서를 통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함으로 의문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면담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녹음하지만,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녹음을 거부하는 모든 참여자와의 면담은 필사만 하였고, 필사도 원하지 않는 참여자에 한하여는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원하지 않는 대답에 거절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보호, 윤리적 연구를 위하여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 2019-05)을 얻었으며,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나 강의에서 사용될 경우 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그 어떤 정보도 삭제할 것이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자, 참여자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다목적실을 이용하였다. 다목적실은 교회 건물에 위치해 있으나 평일에는 교우들의 통행이 적고 연구참여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목적실은 섬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정한 최적의 장소이지만, 교회 안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심층 면담에 1 회에 1 시간 30 분 - 2 시간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다목적실에서의 면담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직접 댁으로 찾아가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새벽예배 후인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7:00-18:00)로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B. 연구방법 및 절차

나는 본 연구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한번도 조명 받지 못하고,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농어촌의 교회력과 추수감사절기의 위치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이것보다 적합한 연구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으로서의 사회현상, 혹은 사회적 현상을 참여자들의 경험으로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학적 입장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이다.[33] 또한 김영천은 질적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토속인, 이방인, 타인, 연구 참여자 등)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34]

즉,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 사회세계, 행위를 해석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정의한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외 당하는 작은 교회들만의 경험과 행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천은 질적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질적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 중의 하나인 발견은 인간/사회현상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은, 설명되지 않은, 찾아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사실들 또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기존의 방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또는 설명되지 못하였던 현상을 새로 이해시켜 주거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나 해석체계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35]

근거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찾아내는 방법이다.[36] 또한 근거이론은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생성할 수 있으며, 연구 시작 전 사전에 인지된 이론적 아이디어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분석과 개념화를 통해 기존의 개념이나 구조들을 비교하고,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 이론의 카테고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거나 새로운 점 또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37]

---

[33]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28.

[3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116.

[35] 김영천, 136.

[3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346.

[37] 김영천, 351.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해 현재 K 교회에 출석하는 20-70 대의 교우 중 10 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과 일대일의 면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 연구자가 내부자 입장에서 공감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38]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면담 가이드를 작성했다.

1. K 교회가 지금까지 지켰던 추수감사절(11 월 셋째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2019 년 9 월 8 일에 드렸던 추석감사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12 월 1 일에 드린 추수감사예배와 음력달력에 따라 드린 추석감사예배는 어떻게 달랐나요?
4. 농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추수감사절은 언제인가요?
6. 교회력과 절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7. 교회력과 절기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8. 교회력과 절기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농어촌에 사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9. 추석은 한 해의 농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맞이하나요?
10. 추석과 추수감사절 예배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1. 추수감사절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와 시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인 K 교회 교우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에서 선행되었던 '판단 중지(epoch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수감사절의 시기와 상황이 농어촌교회와 맞지 않는다.
2. 추수감사절은 추석과 그 시기를 같이하여 드려야 한다.
3. 한해의 농사와 어업이 끝나는 시점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
4. 농어촌교회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추수감사예배 또는 추석감사예배가 필요하다.

---

[38]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근거이론의 과정에서 진행하는 자료 분석은 3 단계 코딩으로 이루어졌다. 1 차 코딩은 개방코딩으로 기초자료를 비교, 검사하여 다시 개념화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줄 단위 분석, 명명과 메모, 범주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도출된 다수의 개념을 의미 있고 대표성 있는 범주로 묶고 명명하며, 대표적인 개념을 범주화하고,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분석함으로 하위범주를 생성한다.[39]

2 차 코딩은 축코딩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들의 관계성 파악을 위해 특정한 구조적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다.[40] 축코딩에서는 중심현상을 작용/상호작용함으로 얻게 된 결과에 집중한다. 또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contextual)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행위/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을 파악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만든다.[41]

선택코딩은 핵심 범주를 선택하며, 선택한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지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고 이론을 통합시키며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42]

나는 연구자로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중심부에 있는 이들과 주변부에 있는 이들 모두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기간 동안 "에포케"[43] 와 "괄호치기"[44]를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추수감사절의 시기와 상황이 농어촌교회와 맞지 않는다', '추수감사절은 추석을 즈음하여 드려야 한다', '한 해의 농사와

---

[39]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1.

[40] 유기웅 et al., 93.

[41] 유기웅 et al., 95.

[42] 유기웅 et al., 97.

[4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95. "에포케(epoché)는 후설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정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로,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44] 김영천, 95. "괄호치기(brackrting)는 판단중지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밝히고 그것을 괄호 속에 묶어 둠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괄호치기는 이러한 괄호 안에 우리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장을 해체하고 '열림(openness)'을 다시 찾음으로써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어업이 끝나는 시점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 '농어촌교회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추수감사예배 또는 추석감사예배가 필요하다' 등의 판단 중지 목록을 만들어서, 교회력과 절기에 대한 편견을 배제시키고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C. 연구진행과정

나는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2019 년 10 월 29 일부터 2019 년 12 월 4 일까지 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1 차 면담을 시작하기 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모든 면담을 녹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취에 대한 부담으로 면담이 진행되지 않거나, 연구참여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필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필사를 한다는 부담으로 면담이 진행되지 않거나, 필사를 원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에 한하여는 양해를 구하여 간단한 메모를 하였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이 종료된 직후 중요한 단어와 문장, 침묵의 길이와 표정 등 상징적으로 기억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메모한 기록과 정리한 내용을 재확인 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참여자를 각각 2 회 면담하였으며, 한 사람당 평균 1 시간 32 분을 면담하였다. 모든 면담에 대한 녹음시간은 15 시간 27 분이며, 그 내용을 모두 필사하였는데 A4 용지에 글자크기 10, 장평은 100, 줄간격은 1.5 로 설정하여 192 쪽이다.

필사자료, 녹음, 메모를 초기자료로 생성하고, 계속적으로 자료 분석과정을 반복하여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분석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2-3 회 반복하여 읽고 코딩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간동안 에포케와 괄호치기를 수행하여 논문의 주제, 그 동안 관계맺은 연구참여자의 성품/학력/관계/성향, 추수감사절과 추석 등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 심층면담과 필사자료

연구참여자	녹음시간		면담횟수	녹음한 면담	필사한 쪽수
	시간 (h)	분 (m)			
A	1	50	2	1.2 차	23
B	2	1	2	1.2 차	23
C	1	51	2	1.2 차	25
D	2	17	2	1.2 차	30
E	1	23	2	1.2 차	17
F	2	5	2	1.2 차	26
G	1	40	2	1.2 차	19
H	1	40	2	1.2 차	20
I		40	2	1 차	8
J	-	-	2	-	1
합계	11	267	20	17	192
평균	1 시간 32 분		2	1.7	19.2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며 이전에 녹음하고 필사한 자료를 읽어주어 확인시켰으며, 녹음을 거부하여 메모한 경우에는 메모와 정리한 내용을 읽어주어 확인시켰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연구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다. 필사본을 받기 원하는 연구참여자에게는 프린트아웃하여 전달하였으며, 연구자가 잘못 이해하였다고 말한 부분들은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자료들은 노트북에만 저장하였으며 이중잠금을 걸어 보안 조치하였다. 교인의 수가 많지 않은 교회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10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기에 이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였다. 또한 연구 자료들의 필사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D. 연구결과 및 해석

개방코딩을 통해 96 개의 개념, 13 개의 하위범주, 9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축코딩 절차를 통해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요소
- 교육기회 결여 - 발언할 수 없는 구조 - 의견차단의 경험 - 타인의 시선 - 목회자를 향한 잘못된 신뢰 - 작은 변화에 대한 미인식 - 안정을 지향하는 교회구조	무관심	교회 안의 잘못 형성된 문화	인과적 조건
- 겸손과 순종의 강요 - 불순종의 두려움 - 강대 권한 집중 - 행정 권한 집중 - 재정 권한 집중 - 인사, 임명권 집중 - 예/결산 집행의 불투명 - 성도의 권한에 대한 오해 - 목회자 중심의 권력 지향 구조 - 견제할 부서나 직위의 부재 - 상급기관의 무관심 - 감사의 필요성	목회자중심의 교회문화		
- 절기, 교회력에 대한 이해부족 - 질문을 지양하는 구조 -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 - 참견, 방해와 조언의 경계모호 - 목회자의 교육열의 부족 - 성도의 교육열의 부족 - 새로운 교육에 대한 반감 - 새로운 제도나 문화에 대한 반감 - 변화에 대한 두려움 - 변화에 대한 거부감 - 소외에 대한 두려움 - 권력이동에 대한 불안 - 교육받은 교인들의 반항과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소문들 - 불명확한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부재	교육의 부재	중심현상

- 실천적 움직임 부족	실천 부족		
- 감사에 대한 이해 차이 (감사를 결산한다?) -감사의 시기에 대한 이해 차이 (꼭 그 때만?) - 감사의 방법에 대한 이해 차이 (그렇게 지켜야 하나요?) - 감사에 대한 교육부재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요?) - 감사의 대상에 대한 교육부재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	감사에 대한 이해 차이	다양한 관점과 감사, 절기에 대한 이해 차이	맥락적 조건
- 강단장식에 집중하는 문화 - 절기헌금에 집중 - 나눔과 구제에 집중 - 목회자의 복리후생에 집중 - 풍성함에 대한 집중 - 쌀에 대한 집중	절기에 대한 이해 차이		
- 타교회를 가본 경험의 부재 - 절기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경험의 부재 - 절기를 지키는 다양한 시기에 대한 경험의 부재 - 다양한 목회와 목회자에 대한 경험의 부재 - 교회 안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의 부재 -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 새로운 경험에 대한 반감 -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신뢰	경험의 부재	경험의 부재	
- 소통의 부재 - 목회자와의 소통 필요 - 설교의 현장성/연결성 필요 - 절기에 부합한 예배의 필요	목회자에 대한 요구	목회자에 대한 요구	중재적 조건
- 절기의 일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개안수술, 쌀기증, 책기증)	다양한 궁금증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교회문화	작용/상호작용

- 추수감사에 대한 진실성 - 성서적 관점에 대한 궁금증 - 참된 것, 바른 것, 이상한 것 - 질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 성경적이라는 잘못된 믿음 - 전통적이라는 잘못된 믿음 - 세상적이지 않으면 된다는 믿음 - 세상과 교회를 잘못 구분하는 믿음 - 목회자는 모두 옳다는 믿음 - 중직들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 신앙의 연수에 따른 고착화 - 수동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 -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 민족대명절(추석)이 무조건 앞서야 한다는 생각 - 맥추감사와 추석, 추수감사에 대한 구분 불명확 - 급진적 변화의 요구(절기를 어차피 새롭게 한다면 통합하여 한 번에 지켜라) - 금전적 요구에 대한 부담(절기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변화를 가로막는 믿음	변화를 가로막는 믿음	
- 추수를 상징하는 작물에 대한 이해차이 (벼, 김장, 굴) - 농업/어업기술의 발달로 형성된 무한순환구조(비닐하우스, 양식장) - 벼의 추수에 대한 시기 차이 (이른벼, 늦은벼) - 배추,무에 대한 수확시기 차이 (이른 배추, 늦은배추) - 농/어촌의 개발로 인하여 이탈 (펜션, 민박, 사회봉사 사업 등) - 농업 기계화에 따른 의식변화 - 현대화에 따른 의식변화 - 농업기술의 발달(이모작 가능)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	
- 헌금요구 - 절기의 프로그램화	변질된 절기	일반화 오류	결과

- 의미의 퇴색 - 절기에 대한 거부감 - 헌신에 대한 부담감 - 감사와 헌물의 이해 - 감사와 헌금의 이해			
- 변화에 대한 불신 - 목사에 대한 불신 - 중직에 대한 불신 - 정책에 대한 불신	의심과 불신	부정적 인식	

인과적 조건에는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연결지어 구성하였고, 해당 범주에는 '교회 안의 잘못 형성된 문화'가 해당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긴 질문들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경험, 겸손과 순종을 강요당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목회 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교회 안의 잘못 형성된 문화]

> *(연구참여자 A) "의견 차단의 경험" 교회 다닌지 얼마 안되었을 때, 되게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라 청년공동체가 좀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다녔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정말 교회 다닌지 정말 얼마 안되었을 때인데,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누어야 하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목장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자언니가 대답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참 지나서 목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다가 결국 목장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oo 아 계란주면 그냥 먹지,, 아니면 누굴 갖다주던가. 그것을 꼭 그렇게 물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목자언니 벙찌는거 못봤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부활절에 왜 계란 먹는지도 모르면서 다니는거예요? 난 궁금한 건 물어봐요." 그랬더니 언니가 제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다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냐? 그냥 믿는거지,,, 너 믿음 몰라? 성경 읽으면서 너 다 이해하고 읽냐? 그냥 믿는거 아니야? 기도는 뭐 다 알고 하냐? 믿음으로 하는거지?" 그 다음부터는 궁금한게 있어도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는 청년이 몇 안되도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
> *(연구참여자 I) "목회자를 향한 잘못된 신뢰" 나는요, 교회 다닌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도 똑바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기 아빠가 먼저 가고, 삼오제까지 지낸 다음에 새벽예배부터 다녔어요. 그 주부터 십일조 구별했어요. 지금도 십일조 한 번 미뤄서 내는 법이 없어요. 노령연금 들어오면 아주 천원까지 딱 구별해서 십일조를 해야되고요, 우리 자식들이 가끔 용돈 주면 농협 다녀오기 바빠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님서, 뭐 이러내, 저러내,, 말들이 많은데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목사님을 믿어야지. 아니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왜 궁금해 한데요?. 거 이상한거 아니요. 마귀 새끼가 득실득실대는거지.

(연구참여자 F) "목회자 중심의 권력지향 구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을 11 월 셋째주에 지키든, 추석감사예배를 추석에 맞춰 드리든 사실 목사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가는거지요. 이런건 그래도 괜찮아요. 다들 별로 관심없을거예요. 가끔 가는 일산의 교회도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요. 뭐 이런거야 목사님이 정해서 하자는대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가끔은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특히 작년에 권사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당회에 통과시키셨지요. 저 정말 교회 안다니려고 했어요. 가끔 부흥회를 하거나 강사가 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도 설교 듣고 싶은 분 있어요. 한 번은 다른 섬에서 목회하는데, 배가 안 떠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드린 전도사님 있지요? 왜 저녁예배를 그 분이 설교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E) "겸손과 순종의 강요" 제가 처음에 박옥수목사한테 미쳐서 전국 집회를 다 따라다녔어요. 그 때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교하는 거 들으면 빠져서 들었어요.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강압적인지 몰라요. 성경구절 한구절 읽고, "십일조 내라" "안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막 찾아서 들이대요. 순종해야 복 받는다. 순종해야지,, 순종 안하면 하늘이 닫혀 비가 안오고, 땅이 놋이 되어 우리를 토해내고,, 저는 그 때부터 그냥 목회자 말이라면 순종했어요. 그런데 박옥수목사 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복받으려면 순종해라. 자식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망하고 싶으면 불순종해라.

중심현상에는 '교육의 부재'의 범주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목회자와 성도의 교육열이 부족하여 그동안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교육이나 제도/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교육받은 교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목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부재]

(연구참여자 J) "목회자, 성도의 교육열 부족"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내 나이 40 에 예수 믿었는데, 그 때는 원산도에 나무 한그루가 귀했어요. 정말 산이 다 대머리가 벗겨져서, 이 산은 불산, 저 산은 돌산, 저 산은 모래산, 저 산은 흙산 이렇게 불렀어요. 황토가 많은 산은 불산, 돌이 많은 산은 돌산,, 그 정도로 나무가 없이 땅만 보였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남편이 내 나이 39 에 먼저 갔는데, 그 때는요 동네에 전화기 하나 있었어요. 전화 하려면 마을 이장님이 와서 전화기를 돌려줘야 하는데, 수첩에다가 전화번호 안 적어왔다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한숨) 교회가면 한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곽목사님이 제가 교회 가고 그 다음달에 떠나셨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가르친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성경 읽어야 한다면서 한글 배울 분들 다 올라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되든 안되든 무조건 다녀야겠다. 서울 동생은 언니 언니 한글 배우면서 간식으로 가서 먹으라고 택배로 과자며 초콜렛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곽목사님이 1 대 목사님이었고, 목사님이 7 대 목사님이예요. 2 대부터 6 대 목사님은 아무도 뭘 가르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안 가르친다고 뭐라고 한 성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또 보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글 가르쳐준다고 교회며 마을에 다니면서 광고했었잖아요. 교인 9 명 중에 한글 3 명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학교는 2 명만 했다고요. 교인들 중에 한글 못 읽는 사람이 2/3 인데, 배울 생각이 없는거예요. 제가 왜 이애기 하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이건,

추석감사절이건 우린 그런거 몰라요. 그런데 왜 모르냐면 목사님들도 안 가르치려고 하고, 교인들도 안 궁금해해요. 한글도 그런데 뭐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거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궁금하겠어요? 나는 궁금해요. 적어도 나는 알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A) "새로운 교육, 제도, 문화에 대한 반감" 목사님이 말씀하신 달력들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들어봤어요. 솔직히 이게 교회력인지, 목회력인지,, 또 뭐라고 하셨죠? 세상달력인지, 교단달력이나, 문화 달력인지 교인들이 아나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니까 지키는거지,, 추석감사절이라니까 지키는거지,, 사실 올해 이렇게 추수감사예배를 두 번 드린것도 지금 알았어요. 둘 중 뭐가 맞냐, 추수감사를 언제 지켜야 맞냐,,,, (한참 침묵) 근데 목사님, 권사님들한테 이거 다 설명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지킵시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그나마 감리교는 덜하겠지만 특히 제가 서울에서 다니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몇 장로님들이 교회 전체를 좌우지 하는 경우를 봤어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 H) "교육받은 교인들의 반항과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소문들" 나는 목사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능력있게 목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나같은 사람한테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또 고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OOO 교회 얘기 들으셨어요? 거기도 우리 목사님처럼 전임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요예배가 끝나면 전교인 앉혀놓고 교리와 장정 가르치고, 동네에서 나오는 캔, 병 수거해다가 자기 차에 싣어서 배타고 나오셔서 고물상에 팔고 그 돈 가지고 애들 장학금 주고 마을 부녀회에 발전기금내고,,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저는 오목사님이 수요예배 끝나고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 것이 화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분이 잘못했다는건 아니예요. 다만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배운 자들이 목회자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고 생각하는거에요.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겨울마다 한글학교에 제자훈련에 성경개론학교, 성경통독학교까지 매년 수고하시잖아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말 실수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인과적 조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맥락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해당의 범주에는 '다양한 관점과 감사/절기에 대한 이해차이' '경험의 부재'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이야기했으며, 절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한 연구참여자는 평생 섬에서 살고 한 교회를 출석한 교인들이 갖는 경험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표적인 연구참여자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관점과 감사/절기에 대한 이해 차이]

(연구참여자 D) "감사에 대한 이해 차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좀 늦게 지키셨지요? 선촌교회는 11 월 첫째주에 지켰는데, 우리 교회는 한달이나 늦게 드리더라고요. 건축 때문에 바빠서 그러시나? 했는데, 이런 논문을 쓰느라 그러셨나봐요. 그런데 저는요 감사를 결산한다는 그 말이 좀 그래요. 감사는 매일 매일 하는거고, 매주 감사예물을 구별하는데 특별하게 결산할 감사가 있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 뭐 특별하게 헌금을 드리면서 지켜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또 감사해라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성품이다. 먼저 감사해라.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감사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멀었죠?

(연구참여자 C) "절기에 대한 이해 차이" 이번 추석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목사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보다는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추석감사절이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예배는 올해 강단장식도 안하셨어요. 작년만 해도 강단 장식한 것으로만 김장을 담가도 될 정도로 많았는데, 올해는 준공도 안났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단 장식을 아예 안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절기마다 여선교회에서 강단장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배를 타고 나가서 화분을 사오고 과일, 곡식, 심지어는 바구니도 사오더라고요. 데코 때문에 그런거죠. 강단 장식에 쓸 에너지를 온전히 예배에 쓴 기분이예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예배였어요. 정말 감사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되잖아요. 우리도 재작년에는 4 명 개안수술 해줬고, 도서관에도 책을 2 천권 기증했었고, 작년에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차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강단 장식이 없었는데도 굉장히 잘 차려진 식탁에 선 것처럼 예배에 은혜가 있었어요. 내년에도 아무것도 안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되겠어요.

(연구참여자 G) "경험의 부재" 저는 다른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 교회 세워지고 한 2 년, 3 년 됐을 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 교회만 다녔어요. 6 명의 목사님을 뵙긴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외에 다른 목사님들도 별로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지난 성탄절에 어쩔 수 없이 딸네 교회를 갔거든요. 애들이 나와서 막 노래부르고 춤 추고, 청년들은 뭐 드라마연극 같은 것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나요? 전화해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강단은 쌀포대로만 장식한다고 하고, 쌀은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나눠주고 그런다고 하대요? 하여튼 요즘엔 다양해요. 뭐든지 다양해. 먹는거며, 입는거며,, 뭐 다 다양해요. 교회도 다양하고, 뭐 다 그런가봐요. 그런데 우린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같아요.

중심현상인 '교육의 부재'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교회문화'는 작용/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조건이며, '목회자에 대한 요구'는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건이므로 중재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목회자에 대한 요구]

(연구참여자 B) "목회자에 대한 요구"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감사예배에 대해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았어요. 사실 말이 가족이지 한 자리에 모이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추석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한 자리, 그것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어요. 반주자나 봉사자들에게 미리 이런 예배가 있다고 알려주셨다면 훨씬 더 매끄러웠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도 주제 넘을까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이 날 드려야 하는지 좀 설명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웬지 모르게 좀 소통이 있었다고 느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작용/상호작용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추수감사절의 적당한 시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연결시켰다. 연구참여자들은 추수감사절의 적당한 시기를 찾기 위해 대규모 개발계획이 확정된 도서지역의 상황에 따라 교우들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변화를

가로막는 믿음'은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 따라 억제와 촉진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작용/상호작용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

> *(연구참여자 G)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 우리 농사가 언제 끝나는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해보니 끝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언제다,,라고 정하기가 모호할 정도로요. 비닐하우스만 치면 겨울에도 딸기가 나요. 비닐하우스가 없어도 겨우내 굴을 까던가, 한과를 붙여요. 양식장도 생각해보면 일이 끝이 없어요. 겨울에는 치어 사다가 넣어서 키우고, 양식장에 들어오는 꽃게며 해파리 잡아야 하고, 새우가 나가면 좀 쉬는가 했더니, 바로 우럭이 나가야 해요.*

> *(연구참여자 C)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벼는 언제 끝나는지,, 그것도 다 시기가 다르다면서요. 이른벼는 7 월에도 수확을 하고, 늦은 벼는 9-10 월이나 되야 한데요. 무, 배추도 그렇고,, 그래서 김장 빨리 하는 사람들은 11 월 초에도 한데요. 어차피 냉장고에 넣는다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12 월 초가 되야 하잖아요. 저처럼 펜션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골일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추수가 끝나는지 감도 없어요.*

> *(연구참여자 B)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1 월에 연륙교 개통되고, 내후년에 해저터널 개통되고, 대명리조트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때도 이렇게 살까요?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는지를 가지고 고민할까요? 아마 농사짓는 사람이 없을거예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다 사다가 먹을걸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서 추수나 추석, 농경사회랑 연관된 절기들의 의미는 많이 퇴색될 것 같아요.*

[변화를 가로 막는 믿음]

> *(연구참여자 E) "변화를 가로막는 믿음" 지난 번 목사님과 면담했을 때, 왜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지 꽤 궁금했어요. 오늘 앞서 짧게 설명해주신 부분은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50 년 가까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지킨 절기와 교회력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라면, 전통적이라면 그냥 좋은 것으로만 알았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옳다고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고 예수를 오래 믿다보니,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리더와 중직들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에는 '일반화 오류', '부정적 인식'의 범주들이 있다. 일반화의 오류란 자신이 경험한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인하여 행정 전체, 예전 전체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화 오류와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일반화 오류]

> *(연구참여자 F) "변질된 절기, 일반화 오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가 프로그램을 막 돌리니까 뭔가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만은 특별한 감사, 별미의 제사를 구별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괜히 추수감사절이 헌금을 크게 걷기 위해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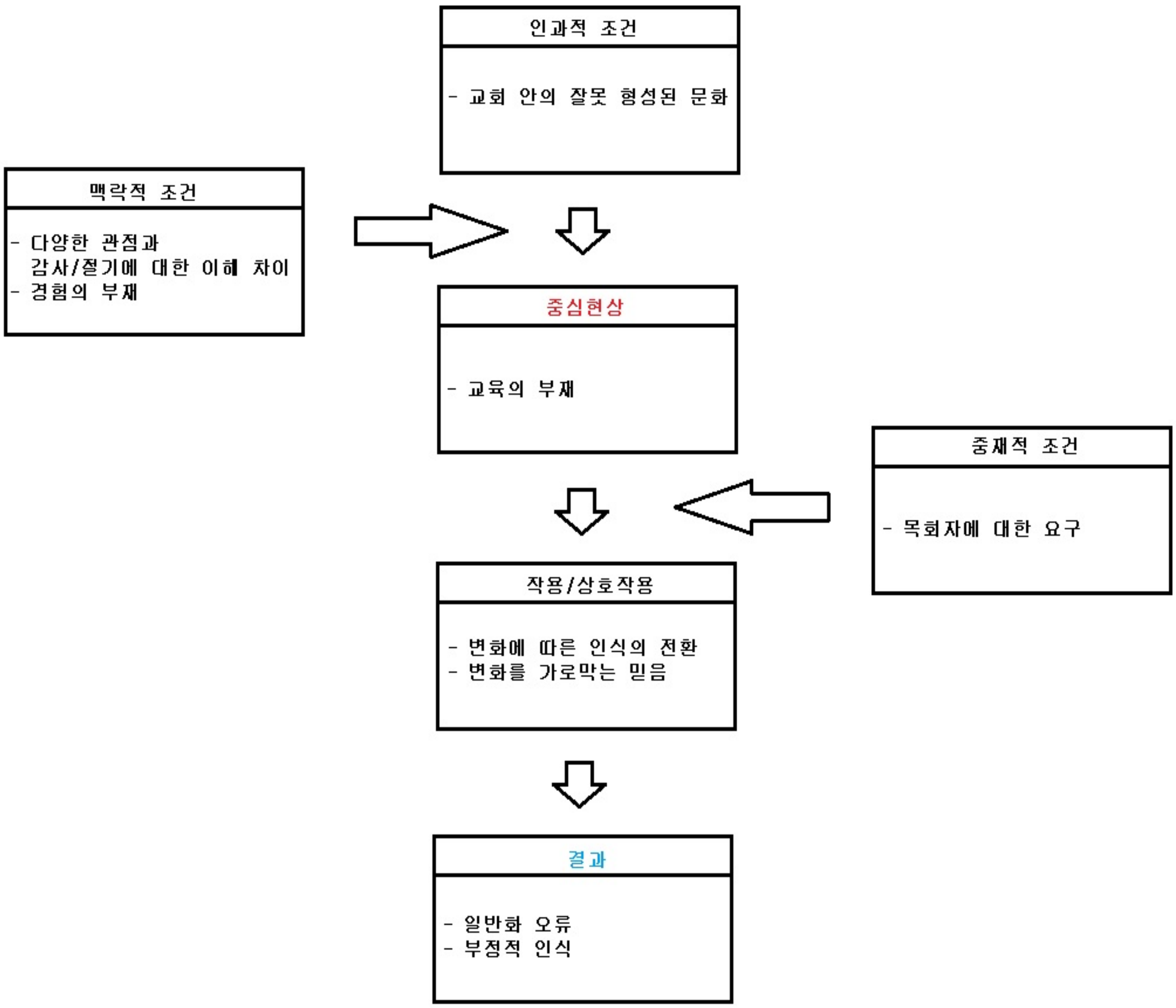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A)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추석감사예배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닌 뭔가 새로운 추수감사절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게 될까요? 괜히 목사님까지 힘들어지시는 것 아니예요? 특히 꼰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한마디씩 거들텐데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엔 어려울걸요?

나는 위와 같이 10 명의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패러다임과 범주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인 현상을 찾게 되었다. 이들 모두 추석감사절도 추수감사절도 농어촌의 실정과 맞지 않음을 몰랐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구참여자들은 추수감사절이 교회력이든, 그것이 아니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듯 하였다. 하지만 1 회차의 심층면담을 진행 한 후에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언제 드려야될까요? 농어촌 실정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찾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왜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의 부재'를 중심현상으로 보았고,[45] 이를 중심으로 축코딩의 결과를 그림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

[45] 연구가 진행될수록 걱정이 앞섰다. 내가 생각했던 원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인터뷰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회 안의 목회자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가 교우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 생각할 권리 마저 빼앗은 것 같았다. 결국 교육받지 못한 교인들은 해소하지 못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경험한 교회 안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는 계속 강화되었다.

〈그림 1〉 축코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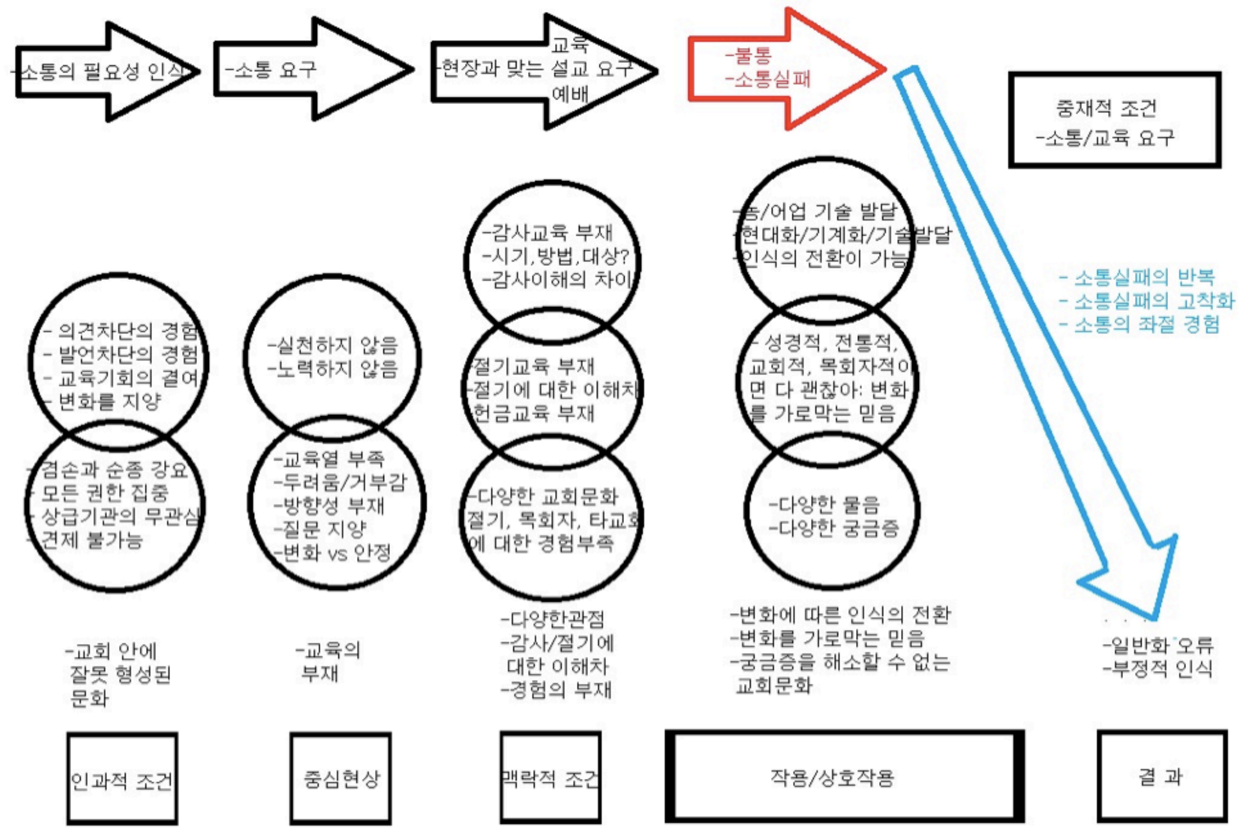


선택 코딩을 통해 도출된 중심현상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킨 추석감사예배와 추수감사예배가 농어촌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관심과,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공동체 안에 잘못 형성된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에 대한 이해 차이', '절기에 대한 이해 차이', '경험의 부재'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교육의 부재'로 발생한 이 갈등은 '목회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통해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작용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갖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수감사절의 사례만 놓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변화와 목사, 중직과 정책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아래의 그림 2 를 통해 중심범주가 심화되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중심 범주 심화과정



E. 논의 및 해석

1. 교회력과 목회력, 교단력과 문화달력의 구분이 불명확

20-70 대에 걸친 10 명을 심층면담하여 농어촌에 합당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 2019 년 9 월 8 일에 지켰던 추석감사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경청하여 보았다. 특히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교회력과 목회력, 문화달력과 교단달력을 혼동/혼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A)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은 교단에서 제시하는거지요? 그러니까 추석은 아닐테고,,, 혹시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날짜를 정하나요? 어디서 내려오나요?

(연구참여자 B) 배운적 없어요. 교회음악을 전공했어도 목사님이 당회때 주시는 스케줄표나 주보를 참고했고, 어련히 그게 맞을거라고 여겼어요.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서로 다른 4 개의 달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도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혹시 목회자들도 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되지 않기 위하여 5 명의 목사와 통화를 하였다. 5 명은 모두 도시에서 대형교회의 부목사로 재직중이다. 5 명 중 절기나 교회력에 불편함을 느끼는 목회자는 없었다. 담임목회자가 제시하는 스케줄이 곧 교회력이요. 목회력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교회력이나 교단력, 목회력에 대한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소위 위에서 내려주는대로 지킨다는 것이다. 교회력이나 절기의 제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교회력과 목회력, 교단력과 문화달력의 구분이 불명확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이미 이것을 잘 구분하여 추수감사절을 의미있게 지키면서 1 년의 목회를 진행하는 교회는 없을까? 권오서는 교회행정과 목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선택하는 것이 교회력을 통한 목회이다. 교회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깊이 심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력은 강림절(혹은 대강절)부터 시작하여 성령강림절에 끝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 년대부터 예배학자들에 의해 교회력이 소개되었다. 현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교회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회력을 예배와 목회에 적용하지 않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전통적인 교회력'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별 절기와 기념 주일에 적합한 '토착적인 교회력'을 설정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46]

교우들이 교회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질적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목회자에게 겸손과 순종을 강요하는 문화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모든 권한이 담임목회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의견이 차단당하고, 발언의 기회 조차 얻을 수 없었다. 예배/절기/감사/헌금/교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매일 파도와 싸워야 하는 도서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전적이지만 목회자에 대한 무조건적/무비판적 신뢰로 다양한

[46] 권오서, *교회 행정과 목회*, 275-76.

물음과 궁금증을 말 할 수 없었다. 요청이나 질문은 서로의 눈짓으로 차단했고, 계속해서 목회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는 집단적인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했다.

> *(연구참여자 E) "잘못된 믿음" 지난 번 목사님과 면담했을 때, 왜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지 꽤 궁금했어요… 성경적이라면, 전통적이라면 그냥 좋은 것으로만 알았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옳다고 여겼습니다… 리더와 중직들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을에서 살 수 있나요? 어렵겠죠. OOO 집사가 왜 교회 떠났는지 아시잖아요. 입 다물어야 교회도 편히 다니는거예요.*

또한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까지 섬에서 한 대다수의 교인들은 K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 다른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 절기예배에 대한 경험은 더욱 부족하다. 경험이 쌓여야 작은 관심이 생기고, 작은 관심이 계속되어야 큰 관심이 만들어지고, 큰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게 만든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니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변화와 교육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는다.

> *(연구참여자 G) "경험의 부재" 저는 다른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 교회 세워지고 한 2 년, 3 년 됐을 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만 다녔어요. 6 명의 목사님을 뵙긴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외에 다른 목사님들도 별로 만나본 적 없어요.*

2.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추수감사절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이 심화될 수록 한가지 질문과 궁금증이 늘어갔다. 맥락적 조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교우들이 가지는 '감사의 시기와 방법, 대상에 대한 이해 차이' '감사 교육과 감사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논의는 결국 도서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지킬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졌다. 이정훈은 성실문화 100 호를 통해 양력 10 월 5 일을 전후한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47] K 교회의 적합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견해는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았다.

> *(연구참여자 H) 나이 먹으니 김장하는게 쉽지 않아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요. 올해는 두 딸이 와서 김장을 같이 했기에 다행이지. 이제 지들이 먹을 것은 알아서 담가가라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른 벼든 늦은 벼든 우리나라가 아직도 쌀농사가 중심이라고*

[47] 이정훈, "성실문화," *성실문화 100 호* (August 2019): 13.

하지만, 정말 추수를 끝내는 건 무, 배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장을 끝낸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C) 저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엄마가 일하는 걸 생각해보면 김장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김장한 다음에는 꼭 올해도 무탈하게 잘 지났다. 한통 목사님 갖다드리고 기도받아라. 그러셔요. 생각해보면 1 년 농사 중 제일 먼저는 국감자를 수확하고, 무, 배추까지 수확해야 농사가 끝나는것 같긴해요.

연구참여자 H 와 연구참여자 C 는 김장이 추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벼의 수확을 추수감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I) 한국 사람들은 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빵이나 떡을 줘도 꼭 밥에 짠지(김치)를 놓아서 먹어야 끼니가 지나가요. 농사도 제일 큰 추수는 벼예요.

(연구참여자 J) 목사님처럼 밥 안잡숫는 분은 정말 처음이예요. 지금도 아침에는 빵이나 뭐 우유말아 먹고 그러신다면서요. 여기설랑 이해가 안되요. 한해 농사도 벼가 추수되어야 안심을 해요. 이른 벼든 늦은 벼든 추석을 전후해서 탈곡하거든요. 되도록 추석부터는 햇쌀을 먹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추석이 음력으로 따져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벼의 추수랑은 얼추 맞아 떨어져요. 올해도 여름같은 추석을 지냈잖아요. 음력이 빨랐으니,, 고추도 일찍 했고, 김장도 11 월 말에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을 태풍에 벼 걱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미 수확이 다 끝난거에요. 벼만 수확해 놓고, 창고에 쌀자루가 들어와야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벼를 기준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이버 캐스트가 2010 년 1 월 26 일(화)에 보도한 *연휴의 최대변수: 음력*에서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인 박부성은 이렇게 말한다. "현대는 음력을 쓸 일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비과학이라는 편견까지 있지만, 사실 음력은 수많은 천문학적 현상과 수학적 원리가 어우러져 있는 놀라운 역법이다."[48] 그러면서 이 글을 통해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 궤도는 원이 아니라 타원 모양이며, 계절에 따라 공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는 대신 공전 속도가 느려지고, 북반부가 겨울일 때는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는 대신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1 년을 24 등분하고도 공전 궤도를 15 도씩을 계산한 음력 달력이 양력 달력보다 농업과 어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벼의 농사도 이것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매년 벼를 심고, 수확하는 날짜는 음력 달력을 기준한다. 도시인들은 태양을 따르는 양력이

---

[48] 박부성, "연휴최대의 변수: 음력," *수학산책*, accessed January 5,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607&cid=58944&categoryId=58970.

편리할 수는 있어도, 날씨에 민감한 농어촌에서는 달을 따르는 음력이 더 적합하다. 실제로 달이 차면(보름달) 물때력 상의 사리와 맞아 떨어진다. 달이 기울면(초승달) 영락없는 조금이다. 달의 크기만 보아도 바닷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농어촌 실정에 합당한 추수감사절은 양력 달력이 아닌 음력 달력을 기준하여 벼농사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김장이 마쳐지는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3. 교회 안의 교육과 권력

연구참여자들이 심층면담을 통하여 추석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또는 목회 행정과 운영 등에 대해 거의 공통적으로 한 말은 교회의 권력구조가 목회자에게 편향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목회자로의 권력집중은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났는데 강대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임명권, 예/결산 집행권 등이라고 말했으며 문제가 생겼을 시, 감사하거나 처벌할 상급기관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목회자에 편향된 권력구조가 교우들의 교육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교육과 권력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 연구참여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 *(연구참여자 E) 내가 왜 교회를 일로 옮겼는지 아세요? 나는 거의 평생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커피집을 차렸는데, 주일날 들어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나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주에 들어와요. 교인이라고 30 명 모이는 마을교회에 부목사를 세워놓고 수요예배, 주일 오후예배는 다 부목사가 설교해요. 새벽예배는 교인들끼리 모이는게 당연하다시피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목사님도 내보내고는 교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주일 오후예배랑 수요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커피집을 어디에 하나 더 만들면서 교회에서 몇천을 갖다 썼대요. 대천에 어르신이라고 그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 하나가 1 년이면 한 번씩 들어와서 감사나 보고를 받는데 교인들이 그 분께 탄원서도 써보고, 찾아가서 목사님 바꿔달라고도 얘기해보고, 별 짓을 다했어요.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평생 다닌 교회를 나왔겠냐고요. 지금도 그 교회를 못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그 교회에서 나오면 자기 죽는데요. 못 배워서 그래요. 뭘 가르쳐야 깨닫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무섭고, 계속 목사님을 반대하면 저주받는다고만 생각하는거예요. 추수감사절? 추석감사예배? 난 목사님이 그런 건 정말 목사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재정통장이나 장부, 직인까지 교인들에게 맡긴다는 소문 듣고 여기로 온거예요. 지금처럼 하셔야해요.*

로마서 13 장 1-5 절은 철저하게 악용된 구절 중 하나이다.[49] 종교지도자들은 이 성경구절을 내세워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교회와 권력이 야합하는 등 잘못된 교회를 만들었다. 한국 기독교는 이 성서구절을 내세워 조선예수교장로회 임원들은 신사참배를 당연히 여겼으며,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 식민지세력을 정당화했으며 이러한 교육과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인권운동, 사회 운동, 통일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정치목사'로 매도했다.[50]

인간은 자연에 의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가치 및 소양을 전수받음으로써 온전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인간성의 자기실현이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교육할 수 없다. 교육은 언제나 의도적인 형성의 과정이다. 교육의 의도는 권력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 의도에 따라 교육목표나 내용이 달라진다.[51]

모든 권력이 집중된 목회자가 어떤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교우들을 교육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나도 7 년째 겨울이 되면 한글학교를 한다. 처음에는 3-4 명의 교우들만 읽을 수 있던 한글을 이제 3-4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두 해가 지나면 한글을 읽게 된 분들은 성경일독학교에 들어온다. 제자훈련을 시작한다. 권유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알면 알수록 자신들의 의견을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한다. 나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도를 바른 방향으로 교육하고, 잘 배운 성도는 교회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사회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49] 로마서 13 장 1-5 절 (개역개정).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50] 유달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봉사하는 것: 종교개혁 500 주년에 즈음하여(4) 권력과 교회(1)," *기독교한국신문*, last modified January 23, 2017,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8.

[51] 김상봉,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2006 년 겨울호* 통권 77 호 (November 2006): 150-51.

4. 감사와 절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

몇 몇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원산도민 전체에게 무료 안검진, 내과 정밀 초음파를 진행하고, 그 중 중증 안 질환자 4 명을 선정하여 개안수술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다. 교회가 왜 원산도 도서관에 2 천여권의 책을 기증해야 하며, 왜 쌀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절기준수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외부와 단절된 도서지역이라는 폐쇄적인 특수성을 극복하고 더욱 다양한 절기준수에 대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우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목회자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심층면담이 진행될수록 혼란스러웠다. 농어촌의 상황, 환경, 조건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을 찾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는 심층면담이 진행될수록 전혀 다른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동안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 평생 섬에 살며 농사짓고, 어업에 종사하면서 제대로된 여행을 한 번 해보지 못했고, 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절기나 교회 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왔다. 결국 교회의 권력구조가 목회자에게 편향되었기에 교우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적합한 추수감사절의 날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결국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집중된 권력으로부터의 탈식민이었다. 한국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아무런 사고없이 수용했던 일들, 지금까지 관습대로, 전통이라고 여기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들로부터 인식론적 비판이 필요했다. 더 나아가 감리교 역사 안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신앙에 대해 혼합이 아닌 번역으로 한국신학을 전개한 토착화 신학자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토착화와 더불어 한국 교회가 토착지역민으로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현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래문화에 수용/접합시킨 문화화를 통해 교우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날짜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배는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어지는 3 장에서는 탈식민주의와 토착화/문화화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Chapter Ⅲ
포스트콜로니얼과 토착화, 문화화

A.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

포스트콜로니얼이란 지금까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인식된 우리 사회와 학문 안에서 잠재되었던 식민지적 이데올로기의 요소를 찾고, 그것을 명확히 인식/비판/저항하려는 움직임이다. 신학 안에서는 사유나 문화, 사상 등의 식민지를 경험한 신학자들이 이미 같은 요소로 침투하여 우리의 관점, 역사, 문화, 삶과 인식을 조장하고 왜곡시키는 이론들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탈식민주의라고 부른다.[52] 문자적으로는 '다음'(after) 또는 '넘어선(beyond)란 뜻을 가진 접두사 'post'를 식민주의라는 'colonial' 앞에 붙여 식민주의를 넘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식민 상황이 독립 이후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내포하기도 한다. 나는 프로젝트에서 탈식민주의라는 말 대신 포스트콜로니얼이라고 사용하려 한다. 한국이 식민 상황이 독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잔재된 식민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탈식민화되어 주권을 가졌지만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에서는 아직도 서구(특히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제 3 세계의 입장에서는 식민주의를 단지 과거사라고 볼 수 만은 없다.[53] 태해숙은 재식민(recolonial) 상태 혹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소위 "신식민(neocolonial)"[54]을 이야기하며 삶의 깊숙한 영역까지 침투한 제국주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한국도 1910 년 8 월 29 일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1945 년 8 월 15 일 광복을 누리기까지는 35 년이지만, 근래 지속되고 있는 'No Japan'을 보면 이것이 진정 경제적

---

[52] 김희영, "탈식민주의가 선교에 미친 영향-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의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2.

[53] 고부응, *탈식민주의: 이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25.

[54]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72.

포스트콜로니얼이라고 생각된다.[55] 탈식민한지는 70 년이 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탈식민을 향한 각성을 시작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총무를 역임한 브라운(A. J. Brown)은 한국 선교에 대해 "한국 기독교인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 한국인은 선교사 선생들이 가르쳐 준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받아들인다"[56]고 말했다.

송길섭은 "미국의 선교가 그들의 특정 신학을 받아들이도록 교육했고… 초기선교사들의 신학을 마치 한국교회의 신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57]고 말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인지에 대한 여과없이 오로지 피정복자의 사유를 통해 실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그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한 "중심이 없는 텅 빈 동질성"[58]으로 구성된 허구이자, 허무한 동일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59]이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은연 중에 우리를 억압하려 했고, 우리는 숨겨진 억압은 찾지 못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만 했다.

---

[55] 2019 년 7 월 3 일 클리앙에서 'indy'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용길은 'NO BOYCOTT JAPAN'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하게 패러디되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사용되는 상징으로 사로잡았다. 같은날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일본제품 불매 목록'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게시글이 등장하였으며 이 사이트는 현재까지 그 목록이 갱신되고 있다. 이어 약 9 만명의 회원을 가진 경기도 지역 농민 단체들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의 한국 측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일본 제품 불매 및 관광거부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서경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아파호텔(APA 호텔) 이용 불매 등 역사 왜곡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호소하며 불씨를 지폈다. 7 월 11 일에는 일본제품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제품의 목록을 알려주는 노노재팬이라는 웹사이트가 생겨났고, 회원수가 113 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네일동 일본여행 친구'가 불매 운동에 참여하면서 카페를 폐쇄하였다.

[56] 이덕주 and 장동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6 호 (February 1997): 30-31.

[57] 김은수, "한국교회와 탈식민주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 집* (April 2003): 290.

[58] 나병철, *근대서사의 탈식민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2001), 180.

[59] Edward W. Said,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trans.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2000), 17-18.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의하면 탈식민주의는 "서양의 가장 위대한 신화, 즉 대문자 역사(History)[60]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전개하는 것"[61]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을 아무런 비판론적 인식 없이 받아들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들이 전해준 전통과 방식, 문화에 대한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

K 교회가 가진 식민지적 요소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인식되던 목회자 중심의 권력구조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비판해보거나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목회자들이 요구했건 그렇지 않건 교우들은 예배, 행정, 목회, 신앙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앙적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굳어졌고,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 교우들이 중직이 되었고, 이제는 평신도에게 무언의 순종을 강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식민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이라는 판단을 가지는 것 조차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통해 교회력, 목회력, 교단력, 문화력을 혼동/혼용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교회 문화 속에서는 전통적이라고 여겨지거나, 상급기관에서 요구하고, 목회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적 연구나 비판적 사고의 과정은 불순종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교육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교회력,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목회력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론적 인식 없이 받아들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신앙과 삶, 교회와 목회에 대한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

B. 토착화(Indigenization) 이론

한국 기독교 중 감리교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인들이거나 미국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고, 유럽처럼 국가교회가 없는 가운데 교파들(denomination)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했다.[62] 미국 감리교는 성장을 통해 얻은 힘을 외부로 분산시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 중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아펜젤러(Henry

---

[60] Young, *백색신화*, 22, quoted in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22. 대문자 역사 'History'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역사를 단일한 틀로 환원시켜 보는 것을 뜻한다.

[61] 이성애, 11.

[62] 이원규,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서울: KMC, 2012), 99.

Gerhart Appenzeller)이다. 그는 1886 년 영어학교를 시작했고, 1887 년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아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곳에서 서재필, 윤치호 등이 강의하였다.[63] 1897 년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헌당하였고, 정동교회를 통해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감리교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동성은 1960 년대에 이르러 윤성범, 유동식, 김광식에 의해 한국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음을 해석하려는 운동인 “토착화 신학”을 전개하게 된다. 예수의 사역에서도 복음이 각 지역에 맞게 변형된 것처럼 서구의 복음을 변형하는 일은 혼합이 아닌 번역함(translating)으로 나타난다.[64]

윤성범은 ‘감’, ‘솜씨’, ‘멋’이라는 한국신학 방법론을 주장하다가 토착화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65] 그는 복음이 한국 민족이라는 마음 밭에 들어가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해야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66] 윤성범이 주장한 신학적 토착화는 먼저 신학적 실존의 주체성 확립이었다. 주체의 문화적 토양의 새로운 갱신으로, 성실히 터 닦여진 옥토화된 토양이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계속해서 윤성범은 “한국적 용어로써 서구신학을 설명하는 것”을 위해 노력했으며, 단군신화와 기독교, 유교와 기독교를 연결하기 위해 애썼다.

유동식은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한국 문화 속에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불변진리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토착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67] 하나님의 복음 사건은 유대인의 고유한 민족문화 속에 적응하여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표현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전해진 지역의 문화/사상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68] 유동식은 한국에 유교(儒敎, Confucianism)와 불교(佛敎, Buddhism)가 자리 잡기까지 무교(巫敎, Shamanism)의 역할이

---

[63]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11.

[64]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선교신학의 이해,* trans. 전재옥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48.

[65] 윤성범이 기록한 “한국 신학 방법 서설” (감신대학보 1961, 기독교와 한국 사상 1964, 현대와 신학 제 4 집 1967)에는 복음을 ‘씨’로 복음을 받아들일 한국 문화를 ‘감론’으로 복음과 문화의 결합을 ‘솜씨’로 비유한다.

[66] 윤성범,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신학,” *현대와 신학 4 집* (January 1967): 56.

[67]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 사상사* (서울: 전망사, 1993), 14.

[68] 유동식, *도와 로고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44.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무교와 기독교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예술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김광식은 한국에서 토착화를 위해 이중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우리가 들은 복음은 서양신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이중적 작업이 꼭 필요하다. … 그래서 토착화 신학은 … 일면으로는 탈 서양화 내지 비종교화이고, 타면으로는 한국적 이해 내재 종교화이다.[69]

특히 김광식은 한민족성의 뿌리를 단군신화에 있다고 보고 "환인, 환웅, 환검"을 연구하다가 '사람됨'에 집중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드러내는 것"[70]이라고 주장하였다.

토착화 신학의 대표 신학자인 윤성범, 유동식, 김광식을 통해 토착화가 서구에서 넘어온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종교에 맞게 재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비 콕스(Harvey Cox)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신앙(faith)와 믿음(belief)로 구분하며 '예수 안에 있는 신앙(faith in Jesus)'이 '예수에 관한 신조들(belief about Jesus)'로 대체된다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71]

우리 교회 안에도 토착화된 고유한 문화들이 존재한다. 새벽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우들은 서로 인사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아침에 드리는 가장 첫 인사는 집안의 어르신에게 드려야 한다는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이다. 자신들이 모신 하나님이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르신이니 새벽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은 만나도 서로 인사하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린다. 새벽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정한수를 떠놓고 어업과 농업의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봄과 가을에 대심방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조상들이 가보로 물려준 물건을 숨기는 일이다. 이것을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신, 가장 위대한 신,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보를 숨기고, 새벽에 인사를 올리는 것이다. 속회 예배에서는 서로 가장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른다. 무언의 약속과도 같다. 그 집에 있는 조상신에게 잠깐 나가 계시라고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0 년 전 작고한 남편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를

---

[69] 김광식, *선교와 토착화*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5), 13-16.

[70] 김광식, *언행일치의 신학* (서울: 종로서적, 2000), 147.

[71] Harvey Cox, *The Future of Faith 종교의 미래*, trans. 김창락 (서울: 문예출판사, 2010), 12-16.

드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김광식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이다. 또한 유동식의 주장처럼 복음을 도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것, 그래서 전해진 지역의 문화와 사상이 잘 결합/융화되도록 하여 성도 개인 신앙적 성숙과 사회적 성화/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C. 문화화(Inculturation) 이론

'토착화(indigenization)'는 1970 대 초부터 '맥락화(contextualization)'으로 사용되었고, 1990 년대에 들어서 '문화화(inculturation)'란 말로 바뀌었다.[72] 이 용어는 문화인류학에서 빌려온 개념으로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개신교에서도 수용하였다. 문화화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을 뜻한다.[73] 또한 문화화는 신학을 '상황화'하는 것이다.[74]

서구신학이 그들의 상황에 맞게 조건 지어진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상황에 따라 재고되고, 재구성되며, 각 문화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이는 교회교육, 예배, 훈련, 교회의 질서, 경건과 관습, 언어와 시, 예술과 건축, 도덕과 신앙론 등 그리스도교적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나야 하며, 복음이 새로운 상황에서 선포된 직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화는 특히 토착 지역민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현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자신들의 전래문화에 수용하여 접합시키는 것을 뜻한다.[75] 문화화는 복음이 토착문화에 적응(accommodation)하고 동화(assimilation and adaptation)하며 변형(transformation)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76]

데이비드 보쉬 주니어(Bosch David J)는 토착화와 문화와의 차이에 대하여 시행자와 관련해서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토착화는 들어온 복음을 재해석하지만, 문화화는 의식적으로 성육신의 모델을 따른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초문화적 존재(super cultural Being)인 하나님으로

---

[72] 이형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신학 지침," *장신논단* 제 12 집 (December 1996): 183.

[73] 김재룡, "선교와 문화-견습선교사의 문화적응(enculturation)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28.

[74]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 김병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660.

[75] 이광순 and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225.

[76] 김재룡, 31.

인간 문화 속에 들어와 문화적 규제 하에 있는 인간과 직접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한 사건으로 본다.[77]

문화화의 대표적인 예로 대표기도를 들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 내에서는 평신도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았다. 언어의 한계를 느낀 선교사는 한국 교회를 세우며 평신도를 기도자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선교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지만, 미국의 예전을 한국적으로 변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화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문화화된 예배가 있다. 배를 구입하여 출항을 나가기 전에 첫 출항예배를 드린다. 양식장에 우럭이나 새우를 넣기 전에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 유교적 제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교회 안의 문화로 자리잡은 추도예배도 문화화이다.

---

[77] 김준남, “타문화선교에 있어서 접촉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1), 36.

Chapter Ⅳ
추수감사절의 회복

A. 패러다임 쉬프트: 탈식민주의적 추수감사절

질적연구를 통해 드러난 K 교회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교인들의 이야기는 교회 안의 잘못 형성된 문화로 인하여 교육의 부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언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열의가 부족한 교우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법이다. 목회자의 교육열의가 부족했고, 목회자가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했고, 목회자 중심의 권력구조가 중심현상을 계속 강화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목회자 자신도 아직 탈식민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서구의 기독교 유산이며, 오래 전 청교도가 미국에 상륙하여 하나님 앞에 몇 안되는 농산물로 감사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심층면담과 다양한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전해진 추수감사절을 여과없이 받아들였고, 지금도 아무런 근거와 이유없이 지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도서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 시기를 고려하여 추수감사절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탈식민주의적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수감사절을 농어촌의 상황에 맞게 지킨다면 언제가 되어야 할까? 변성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 흔히 한가위가 추수감사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하지만, 벼는 물론 그 밖에 조,콩,팥,채소들의 수확이 9 월과 10 월에 몰려있기에 오히려 음력 10 월쯤에 행해지는 풍속들이 추수감사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력 8 월 15 일 한가위는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일단 힘든 농사를 마쳤다는 농공감사의 의미가 더 짙다고 볼 수 있다.[78]

하지만 변성수가 주장하는 것은 농경문화에서 고려된 추수감사절이다. K 교회의 교인들이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

[78] 변성수, "한국 고유명절인 설과 한가위의 올바른 전례거행-고유명절의 전례거행 안으로 토착화 시도"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21.

한해 바다농사의 마지막 작물인 굴은 10 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1 월 말까지 진행된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12 월을 전후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이 때는 김장이 완료되는 시기와도 비슷하다. 매우 이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어촌에서 가장 합당한 추수감사절 12 월 첫째주나 둘째주로 정할 수 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문화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B. 문화화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결단, 회중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단 예배의 본질에 문제가 없을 때 물어야 할 다음의 질문은 '왜 변화를 원하는가?'이다.[79] 나는 왜 추수감사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불편함 때문이다. 우리의 시기와 상황, 문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은 폭력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이정훈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예시로 시편 100 편을 부를 것을 강조했다. 가락은 아리랑 가락이고, 장단은 세마치로 읊으며 뒷소리는 세마치로, 앞소리는 중중모리로 할 것을 부탁했다. 뒷소리는 찬양대의 합창으로, 앞소리는 독창이나 이중창으로 하면 좋다고 부연했다.

[79] 김영국,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76.



얼마전 시청의 복구명령으로 250 수나 되는 나무를 심어야 했다. 거동이 가능한 교인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마을의 젊은이들도 몇몇이 일손을 거들었다. 나는 줄을 잡고 2m 간격으로 나무가 잘 심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어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어기어차~" 그러면서 자리를 옮겼다. 나무를 다 심은 사람이

"어기야~" 뒤를 이어 다 심은 사람들은 "어기어차~" 아무렇지도 않게 알 수 없는 말들을 주고 받으며 나무를 심었다. 이정훈이 추천한 것처럼 전체의 예배를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교인들과 교창하여 부르는 우리 가락 한 곡만으로도 충분히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것으로 변모되고,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장 농어촌의 상황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무와 배추가 강단을 차지하고, 머리에 이고 온 바구니마다 쌀이 가득하며, 햇빛 맞아 주근깨가 가득한 감과 사과, 산에서 주워서 크기가 저마다 다른 밤들이 장식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교인들은 강단장식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 는 인터뷰시에 이런 말을 하였다:

> *(연구참여자 C) 작년만 해도 강단 장식한 것으로만 김장을 담가도 될 정도로 많았는데, 올해는 준공도 안났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단 장식을 아예 안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 올해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강단 장식이 없었는데도 굉장히 잘 차려진 식탁에 선 것처럼 예배에 은혜가 있었어요. 내년에도 아무것도 안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되겠어요.*

아무도 서운하지 않고, 아무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적당한 선의 장식으로 강단을 꾸미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C. 토착화의 성육신으로 보는 추수감사절

김재준은 토착화 신학 중에서도 발효모델의 대표신학자로 불린다. 그가 주장했던 발효모델은 밀가루 반죽의 관계를 아날로지로 하였다. 변화시키는 능력 자체는 효모에게 있지만 효모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밀가루 반죽에 해당하는 실재는 넓게 말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를 말하지만, 좁게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피선교국의 문화적-사회적 현실로 보아야 한다. 특히 발효 모델에서 주목해야 할 유형적 특징은 "성육신적(Incarnation) 오리엔테이션"[80]이다.

成(이룰, 될 '성') 肉(고기, 살 '육')했다는 예수의 이야기는 철저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 김재준은 "발효모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포용적 성취설"로 설명한다.

---

[80] 진성한, "기독교신앙의 한국적 토착화 방법론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23.

이는 네가지 요점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 존재의 해석학적 '영향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1,500 년의 긴 세월동안 무교, 불교, 유교 등 종교문화 전통으로 이미 그 체질이 형성되고 사회생활의 전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일정한 문화적 가치체계와 삶의 의미와 구원의 페러다임이 이미 존재했으므로 19 세기말 초기 선교사들의 종교문화 정복론적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에 존재했던 고등종교들은 '악마의 소산'도 '인간의 창작물'도 아니며 '자유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단편적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 복음 전래 이전 한국 종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에 의해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이다.[81]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를 정복의 대상이거나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유동식은 토착화를 초월적 진리가 자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성과 초월적인 진리가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으로 적응하도록 자기를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82] 특히 "복음의 방법론"은 빌립보서 2 장 6-11 절의 성육신 원리를 따른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로써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상적인 사귐을 갖도록 하였다"[83]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을 통한 승리와 자기 부정을 매개로 한 자기 실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부정 그 자체를 목적하거나 자기 해탈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자기부정을 통해 그 부정을 매개로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가서 같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실현이 있고, 자기 관철이 있을 수 있다.[84] 결국 유동식의 토착화에서의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는 독자성과 초월성이다. 역사적 현실과 타협해서 진리가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독자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피정복자의 역사와 세계, 문화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의도대로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혼합주의와 구분해야 한다. 주체자의 현실에 대한 적응이며, 주체자의 문화와 전통에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

[81]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2003), 199-212.
[82] 유동식, "복음의 토착화와 선교적과제," *감신학보* (October 1962): 58.
[83] 유동식, *도와 로고스*, 43.
[84] 유동식, 44-47.

나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자기를 부정하사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세계 안으로 오신 것처럼 도서민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서지역 교회의 특성은 교인 대다수가 교육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식구가 너무 많아서, 섬이어서 포기한 학업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상처로 남았다. 2013 년 부임 직후 시작한 한글학교는 소외와 억압으로 고통 당하던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이들에게 지성적 계몽과 위로가 되었다. 또한 조개작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교우들을 위해 목회자가 장화를 신고 갯벌에 들어가 간식을 나누는 것도 K 교회가 경험하는 “같이 되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농어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시기를 논하는 작업도 내가 목회하는 K 교회의 전통과 상황, 여러 조건과 문화들을 고려하여 이들 안으로 도서지역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이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의 성육신으로 볼 수 있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매년 추수감사절은 돌아온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인만큼 누구 하나 소홀히 이 절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절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절기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에 그쳤기 때문이다. 절기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나눔들에 대해서는 소개했지만,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적어도 프로젝트 논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추수감사절을 인도하는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동일하게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얼마나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그럴 때마다 이 때가 맞나? 이렇게 드리면 되나? 괜찮을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회중들은 어떨까?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원산도민 1000 명을 대상으로 정밀 안검진과 내과초음파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그 중 4 명을 선정해 개안수술을 선물하기도 했다.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도 했고, 쌀을 기증하기도 했다. 마을에 떡을 나누기도 하였다. 매년 추수감사절은 전도축제로 보내며 40 일이상 거점전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10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만나고, 나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도출된 심층면담의 결과를 두고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는 것은 내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개방코딩을 통해 96 개의 개념, 13 개의 하위범주, 9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을 때는 막막한 터널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것 같았다. 연구참여자들이 내게 솔직하게 들려준 자신의 이야기는 때로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고, 아프게 하기도 했다. 물론 즐겁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리들이었다. 교회의 모든 권력이 목회자에게, 나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 강대권, 재정권, 인사/임명권, 예/결산 집행권, 이렇게 많은 권한에 비하면 추수감사절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작고 미약한 주제였다.

특히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교육의 부재에 대한 내용은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배우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고, 듣고 싶었다. 묻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아멘!"으로 밖에 반응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양한 관점과 감사/절기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한 이해차이를 가지고도 언제나 목회자의 획일적인 답변을 듣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모두 축복으로만 알았지, 누가 이런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다채로운 문화, 다양한 목회에 대한 경험의 부재는 이들을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 구분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목회자는 옳을 것이라는 맹신을 갖게 하였다.

그저 성경적이라면, 전통적이라면, 세상적이지만 않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맹종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절기에는 헌금이나 많이 하면 된다고 배운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모두 목회자의 탓일 것이다.

연구가 계속 될수록, 면담이 길어질수록 점점 몸을 앞으로 내밀며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교회의 문화를 만나게 되었고, 면담이 진행될수록 이건요? 저건요? 이 때는 어때요? 저 때는 어때요?라며 먼저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모습,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등한시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목회자보다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결국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곳에 묻어둔 답답함과 궁금증, 더 깊숙한 곳에 묻어둔 자신들의 의견과 목회자에 대한 원망일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목사님께서 당위성을 가지고 헌금을 요구할 수 있기에 모든 절기가 반갑지 않다는 젊은이의 이야기, 상처받을까봐 더 헌신하기가 두렵다고 한 연로한 어르신의 이야기,,, 이 모든 생각과 궁금증, 깊이 묻어둔 답답함은 결국 곪아 터져버려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농어촌에 가장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연구는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교회의 예배, 행정, 재무, 인사 등의 모든 사역들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아픔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였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름, 차별, 아픔과 갈등을 모두 안고 함께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농어촌 교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은 언제일까? 이정훈 목사는 성실문화 4 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 나는 몇 해 전 감리교회가 만든 한국 최초의 월간지인 '신학월보'를 읽어 내려가다가 1902 년 1 월호에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린 기록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여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천지방 여러 교회들이 모여 첫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으니 그 날짜가, 1902 년 양력 10 월 5 일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로부터 두 해 전인 1900 년 12 월호 사설에서 당시 편집자였던 선교사가, '한국교회는 아직 추수감사일이 없으니, 이날(미국 추수감사절일인 11 월 넷째 목요일–이는 1939 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다시 11 월 셋째 목요일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을 감사일로 정하기 바란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선교사의 주장이, 무슨 연유에서 였는지는 몰라도, 두 해가 채 못되어 현지 사람들에 의해 뒤집어졌다는 사실이다. 100 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85]

100 년 전 한국 교회의 선배 목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농어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은 치열한 고민으로 오늘, 이 곳에 있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 호미 바바의 문화의 위치를 보면 "초기 인도의 전도사 중의 하나인 아눈드 메세(Anund Messeh)가 미러트(Meerut)선교"[86]에서 돌아와 델리 근교의 나무 숲을 여행하며 500 명의 기독교인을 만난 일을 기록한다. 그들은 인도의 카스트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며 브라만의 간섭적이고 압제적인 권위에 불쾌감과 경멸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었다. 아눈드가 묻는다. "왜 당신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깨끗하고 죄를 속량했다는 표시로 하얀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미러트에 있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자는 아눈드 메세의 말에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국가가 힌두교를 따르며 육식을 거부하는 인도 문화에서 "예수님의 몸이 구체화된 빵"을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87]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성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만찬을 자신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며 과감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과감하게 거부했던 것처럼 K 교회도 도서지역에 가장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시기,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 교우들은 심층면담이 진행될수록 자발적으로 도서지역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황과

---

[85] 이정훈, "성실문화," *성실문화 4 호* (August 1995): 36–37.

[86] 인도 북부 우타 프라데시 주 서부의 도시 (역주)

[87]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232–34.

조건에 맞는 추수감사절의 날짜를 정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다. 교우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동안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목회자가 한걸음 물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부터 시기와 더불어 어떤 모습으로 절지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 도서지역에서 드릴 최상의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관점이 상충하고, 서로 다른 이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늘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만큼은 K 교회 교우들이 결정하고 실행하길 원했기 때문에 중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대신했다.

먼저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교우들은 질적연구를 위해 드렸던 2019 년 추석감사예배와 추수감사예배, 그리고 교인들의 심층면담 자료를 검토한 날짜에 따라 농업과 어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양력 12 월 첫째주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농업과 어업은 음력 달력을 기준하지만, 양력으로 계산하여도 12 월 첫째주에는 모든 농업과 어업이 종료된다. 물론 12 월 첫째주로 추수감사예배를 정하는 일에는 위험도 따른다. 12 월 첫째주는 대강절 첫번째 혹은 두번째 주일이기 때문이다. 회개와 소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대강절과 추수감사절예배를 함께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교우들은 대강절 예배와 추수감사절예배를 어떻게 한 주에 드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리고는 새벽예배를 통해 대강절 첫주일 예배를 드리고, 낮예배를 통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안했다. 농어촌교회의 교인들은 새벽예배에 강하다. 1 년에도 8 회 이상의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며, 이 기도회는 차량운행만 한다면 모든 교인들의 참석도 가능하다. 교우들의 제안처럼 회개와 소망으로 촛불을 밝히는 대강절 예배를 새벽예배로 특별하게 드리고, 추수감사절예배를 주일 낮예배를 통해 드리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시기는 정해졌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남았다. 심층면담에서 추수감사절의 성대한 강단장식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했던 성도도 있었다. 또한 성전건축의 연유로 임시 예배당에서 강단 장식도 하지 못한 채 드린 2019 년의 추수감사예배에 허전함을 가진 성도도 있었다. 허전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강단 장식이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교우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농산물, 해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떨지 제안했다. 주근깨가 가득한 사과, 해풍을 맞고 자란 고추와 벼, 못생긴 감자와 고구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배추와 무, 굴과 조개가 강단에 올려지고 위에서 제안한 국악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성도들의 흥겨운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예배를

상상해본다. 또한 이 예배는 한 젊은 성도가 언급한 것처럼 헌금을 강조하는 예배가 아닌 진정한 감사와 고백, 눈물이 어우러지는 예배이면 어떨까?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박사과정의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목회 전반을 점검할 수 있었다. 추수감사절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시작한 논문이 목회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교우들에 의해 추수감사절의 시기가 정해지고, 그 방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맺게 되었다.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렸고, 전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과거에는 몇 주 전에 주보에 광고를 내는 것으로 결정을 대신했다면 이제는 교우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녹여 예배를 만들어 갔다. 클레어몬트가 가르쳐준 포스트콜로니얼, 페미니즘, 코즈모폴리타니즘이 아니었다면 과감히 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교우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교우들의 헌신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그 예배야 말로 가장 유의미한 예배라는 사실이다. 이것이야 말로 목회자에게 가장 귀중한 배움이요, 목회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록 A: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농어촌교회 예전: 구치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의 박해정/김남중 교수의 지도 아래 황선필에 의해 수행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 박해정 박사 (hpark@mtu.ac.kr/***-****-****), 김남중 박사 (njkim@cst.edu/***-****-****)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의 추수감사절을 고찰하여 한국의 도서교회에 적합한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K 교회 교우들은 추수감사절과 교회력, 목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참여는 도서교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시기와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황선필 seonpil.hwang@cst.edu/***-****-****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는 약 1 시간가량 심층 인터뷰에 참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 될 것입니다. 귀하의 참여는 K 교회에서 경험한 추수감사절과 교회력, 신앙생활 전반의 경험을 진솔하게 진술함으로 탈식민적 추수감사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참여 함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도서교회에 적합한 추수감사절의 시기와 방법’을 제일 먼저 무료로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알려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 중 불안감, 슬픔, 피로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보관 될 것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제한된 수의 연구 관련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해정/김남중 교수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귀하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적인 목적으로 귀하의 연구참여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음 등이 사용 된다면 귀하의 신분은 보호되거나 가명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와 관련된 정보는 본 연구가 종료 될 때까지만 보관될 것이며 그 후에는 파기 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황선필의 전화번호 ***-****-**** 혹은 seonpil.hwang@cst.edu 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9-05]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부록 B: 구치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자료
(Appendix B: Kuchi Church Thanksgiving Liturgy)

교회소식

1. **환 영**
   -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감사의 글**
   - 강단 장식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매일 기도회**
   - 일시: 11월 1일 - 준공 시까지(매일 저녁 6시 30분)
   - 장소: 임시예배당
   - 주제: 주여! 도우소서!
4. **정기당회**
   - 일시: 12월 8일(주일) 오전 12시
5. **정기구역회**
   - 일시: 12월 9일(월) 오전 11시
6. **다음 주 예배 임사자**
   - 기도 : 박순종 권사
   - 헌금위원 : 3속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06:30
주일저녁예배	오후 06:30	새 벽 기 도	새벽 05:00
연 합 속 회	오후 06:30	어린이/학생	오전 11:00

모든 예배 10분 전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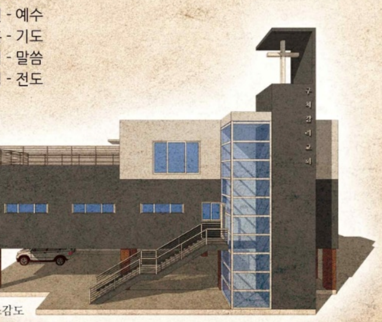
창립 1989. 11. 23
제 30권 48호 2019. 12.1

구원과 치유의

구치교회

2019 표어
성전건축의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의 언약
우리의 **주인** - 예수
우리의 **호흡** - 기도
우리의 **양식** - 말씀
우리의 **사명** - 전도



새성전 조감도

2019 Vision. 성전건축의 영광을 받으소서!
구치감리교회

담임목사 **황 선 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3길 31-12
www.kuchi.or.kr, ☎ 041. 936. 6197 / 010. 5091. 0188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_요 4:24

주일오전예배

추수감사주일

집례 황선필 목사

조용한기도	다같이
예배의초청	집례자
※ 경배와찬양	시편송서(아리랑 가락) / 다같이
※ 교 독 문	105. 감사절(1) / 교독
※ 신 앙 고 백	다같이
※ 삼 위 영 가	1장 / 다같이
회 중 기 도	한금자 권사
주 기 도 문	다같이
성 경 봉 독	**창세기 39장 1-5절**
말 씀	**감사하며, 인내하고, 소망하라.** **| 황선필 목사**
봉 헌	301장(헌금위원: 3속)
봉 헌 기 도	집례자
교 회 소 식	집례자
※ 결단의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 다같이
※ 결단의기도	다같이
※ 축 도	황선필 목사

주일저녁예배

성 경 봉 독	**시편 27장 1-6절**
말 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 황선필 목사**

수요예배

마가복음 강해
6장

새벽예배

여호수아 강해
17장 ~

예배위원

	12/1	12/8	12/15	12/22
주일낮기도	한금자	박순종	김상금	신영순
헌 금 위 원	3속			

속회안내

	속 장	인도자	다음 장소
1속	정문순	박순종, 김민자	전종월
2속	김상금	신영순	최복점
3속	이재옥	한금자, 최수희	김경자

건축헌금보고 www.kuchi.or.kr

200 교회의 헌신(1계좌:백만원)	3000 성도의 헌신(1계좌 : 십만원)
서울시 절제회(2,000,000원) 대림교회(5,000,000원) 경천교회(600,000원) 소망교회(800,000원)	정영태/안진희(500) 송기성/이강숙(300) 황선필/최란진(50) 김만수/김상례(50) 김정아(30) 송수현(12) 김만곤(10) 이성희(10) 전성혜(10) 김지태(10) 규빗디자인(5) 위현숙(4) 박정자(3) 한지연(2.5) 김예나 김현수 김하이네 고영훈/유아름/ 고시온/고단비 영종8여선교회 무명
현재 모금액 : 100,600,000원	현재 모금액 266,370,000원

모금액 총계: 366,970,000원
(농협 351-0619-2356-03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치교회)

설교문

감사하며, 인내하고, 소망하라

시편 44편 1-8절

시편 44편은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위기에 직면한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은 기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 교훈과 도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첫째, 돌아볼 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옛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어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2절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는 앗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지만,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살펴본 2-3절은 모두 수동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얻어지고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힘이 하나도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주의 손이 도우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셨으며, 할렐루야!, 주님이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우리 민

족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감정 중 '욕심'과 '질투'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법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은 늘 잘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감사는 먼저 내가 가진 욕심과 질투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감정으로 '승리욕'이 있습니다.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승리욕'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부르고, '비교'는 '경쟁'을 경쟁은 '절망'과 '아픔'이 되어 자신에게 '독'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짧은 기간에 이룬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OECD 국가 중 8년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로도 유명합니다. 경제대국, IT강국, 문화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왜 전세계에서 자살율 1위입니까?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다는 강박심리가 결국은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옛날을 생각해봅시다. 무도 귀하고, 들에 풀도 귀하여, 바다에 나는 '말'이 '쌀'보다 많이 섞인 말밥을 먹고 살던 것이 어제 아닙니까? 집도 절도 귀하여, 쥐가 우글거리는 집에 살고, 지네 나오는 집에 살던 것이 바로 어제 아닙니까? 눈치보느라 우는 자식에게 젖도 제대로 못 물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래를 퍼날라 돈을 벌고, 갯지렁이 잡아 팔고, 나무해다 떼던 시절이 엊그제 아닙니까?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스렌지 돌리면 불 나오고, 손가락 한 번 움직이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자식들에게 보내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고, 흰 쌀밥을 입안 가득 넣고도 부족하다고, 콩과 여러 잡곡 넣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가지 잊지 맙시다. 이것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4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의 팔과 능력으로 하신 일임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금은 인내하라.

이렇게 과거에 대하여 회상하며 감사하던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은 "옛날에"로 시작했지만, 9절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시제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를 보던 눈을 현재로 돌려,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9절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히스기야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버리사, 앗수르에게 욕을 당하고 있답니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음으로 모든 재산도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고" 13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와 조롱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14절 "다른 민족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능욕당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15절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히스기야가 느끼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도망갔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매일 매일, 현재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지금의 현재는 '인내해야 하는 때' '참아내야 하는 때' '견뎌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달프고 힘든 현실'도 지나가고 옛 적 일이 될 때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현재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실의 온전함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법과 죄악에서 떠나기 위하여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쉽게 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여기까진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려운 중에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느끼기에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22절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단지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인내는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참고 버텨내는 세상적인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앎이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그저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쓰고, 어려운 때일수록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인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욥의 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떠나라고 도전하지만, 그는 끝까지 행실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져버

리지 않아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욥의 인내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가 인내함으로 얻은 축복,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얻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 아픔의 때, 고난과 역경의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단련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인내를 완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부어시는 갑절의 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내일을 소망하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국 이런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와주심으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소망에 대한 한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일에 기대할 것이, 바랄 것이, 기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죽음에서도 기다릴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며, 결국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새 집에 대한, 새 차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각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현세적이며, 인간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소망과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

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끊을 수 없으며,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바라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강조합니다. 부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잘사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길 소망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그 분을 믿어 이르는 영생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시간과 조건,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정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임시 예배당은 좁고 불편합니다. 춥기도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새 성전에서 드릴 예배, 내년에 더욱 협력하여 구치교회에 가장 적합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소망 중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 "한 해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산과 바다 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돌보신 섭리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날을 정하여 가장 농어촌적이며, 가장 K 교회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결산하는 이 날 우리에게 베푸신 것보다 베풀어주실 것들을 더 크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장 우리 앞에 주신 것들로 나의 창고와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때,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의 일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풍성하게 거두지 못한 이들의 삶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상하고 깨어진 곳을 만져주사 다시 논과 밭으로, 바다로 향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어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며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문헌

(Bibliography)

<u>1 차 자료 (Primary Resource)</u>

[한서]

고부응. *탈식민주의: 이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권오서. *교회 행정과 목회.* 서울: KMC, 2012.

김광식. *선교와 토착화.*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5.

______. *언행일치의 신학.* 서울: 종로서적, 2000.

김영국.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나병철. *근대서사의 탈식민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2001.

남　호.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서울: KMC, 2010.

박근원. *교회력과 목회기획.* 서울: 쿰란출판사, 2003.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서울: 동연, 2016.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8.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유동식. *도와 로고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______. *한국 감리교회 사상사.* 서울: 전망사, 1993.

______.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2003.

이광순 and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이원규.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서울: KMC, 201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3.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______.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서울, 문화과학사, 2004.

[영서]

Moore-Gilbert, Bart.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 London: Verso Books, 1997.

Young, Robert J. C.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Oxford, UK: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2001.

[번역서]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lated by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lated by 김병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Cox, Harvey. *The Future of Faith 종교의 미래*. Translated by 김창락. 서울: 문예출판사, 2010.

Hamilton, Adam. *Unleashing the Word 말씀을 해방시켜라*. Translated by 유성준. 서울: KMC, 2009.

Horn, Edward T. *The Christian Year 교회력.* Translated by 배한국. 서울: 콘콜디아, 1994.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aid, Edward W.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Translated by 박홍규. 서울: 교보문고, 2000.

Sanneh, Lamin.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선교신학의 이해.* Translated by 전재옥.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Webber, Robert E. *As Ancient-future Time: Forming Spirituality though the Christian Year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Translated by 이승진.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저널]

김문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no. 47 (May 2015): 7-42.

김상봉.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2006 년 겨울호* 통권 77 호 (November 2006): 150-78.

김은수. "한국교회와 탈식민주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 집* (April 2003): 287-307.

박근원. "교회력과 그 토착화의 가능성." *기독교사상* vol. 225, no. 9 (September 1979): 45-57.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October 2015): 23-41.

유동식. "복음의 토착화와 선교적과제." *감신학보* (October 1962): 43-58.

윤성범.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신학." *현대와 신학 4 집* (January 1967): 40-60.

이덕주 and 장동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6 호 (February 1997): 30-64.

이정훈. “성실문화.” *성실문화 100 호* (August 2019): 12-15.

______. “성실문화.” *성실문화 4 호* (August 1995): 36-38.

이형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신학 지침.” *장신논단* 제 12 집 (December 1996): 159-87.

정장복. “교회력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vol. 10, no. 12 (December 1994): 509-34.

[학위논문]

권오경. “한국 추석문화 교육방법 연구-한, 중 문화대조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1.

김재룡. “선교와 문화-견습선교사의 문화적응(enculturation)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김준남. “타문화선교에 있어서 접촉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1.

김희영. “탈식민주의가 선교에 미친 영향-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의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변성수. “한국 고유명절인 설과 한가위의 올바른 전례거행-고유명절의 전례거행 안으로 토착화 시도.”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이성애. “호미 바바의 혼종성을 통한 종교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조성태. "교회력에서 부활절기의 위치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2.

진성한. "기독교신앙의 한국적 토착화 방법론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허천재. "한국 전통문화에 따른 절기예배문 시론."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03.

[웹사이트]

김명실. "추수감사주일, 꼭 11 월 셋째주일이어야 하나요?" *한국기독교공보.* Last modified September 15, 2015.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6895280668&page=127.

박부성. "연휴최대의 변수: 음력." *수학산책.* Accessed January 5,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607&cid=58944&categoryId=58970.

유달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봉사하는 것: 종교개혁 500 주년에 즈음하여(4) 권력과 교회(1)." *기독교한국신문.* Last modified January 23, 2017.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8.

<u>2 차 자료 (Secondary Resource)</u>

[영서]

Anscar, J. Chupungco.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als, Religiosity, and Catechesis.* New York: Pueblo Books, 1995.

[저널]

안덕원. “믿음의 법이 기도의 법으로: 예전 토착화의 모범으로서의 추도예배.” *신학논단 제 72 집* (September 2013): 297–319.

Shin, Hyoung-Seop. “Critical Analysis on Sunday School Worship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iturgical Inculturation Theor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 (September 2016): 157–83.

[웹사이트]

네이버. “연휴최대의 변수: 음력.” 캐스트. Accessed January 5, 20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607&cid=58944&categoryId=58970.